MAR 1 9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73 1982년3월16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bay, March 16, 1982

═오진이 빚은 실명의 비극═

"失明으로 빼앗긴 幸福 돈으로 찾을수 있나요"

誤診보상금 5百50萬弗받은 40대 金정숙女人"남은삶 보람있게…"

(뉴욕지사)"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가가 나의 주요관심사입니다."

갑자기 맘몬(황금신)을 만난 뉴욕의 김정숙(45세, 미국명 수지김) 여인은 거액의 행운보다 장래의 건강을 더 걱정했다.

뉴욕병원이 녹내장을 독감으로 오진함으로써 실명(장님)한 김여인은 뉴욕주민사소송 사상 최고액인 550만달러의 손해배상을받게 됐다.

김여인은 9일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성공적으로해결한 허버트·호로위츠 변호사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물론 이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낫지요. 그러나 돈이 실명으로 빼앗긴 나의 행복을 되찾아 주리라고 믿지 않읍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더튼튼해질 수 있나를 생각하고 있읍니다."하고 담담히 말했다.

동병원의 근무자였던 김여인은 90만달러를 즉시받고, 일생동안 해마다 12만달러씩 타는 것 외에도 앞으로 20년간 몇차례에 걸쳐 또다른 1백만달러를 지급받게 됐다.

이 보상금은 앞으로 첫 20년간은 그녀가 세상 떠나더라도 상속자가 탈 수 있도록 되어있다.

미혼녀로 미국내에 친척이 없는 김여인은 지난 76년2월26일까지 주급 5백달러로 뉴욕병원 화학실험실장으로 근무했다.

김여인은 6.25사변중 아버지 김명호씨가 인민군에 납치되어 생사를 모르며어머니 박이분씨는 60년대에 사망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경기여중을 졸업했다는 김여인은 52년미군장교를 따라 미국에 건너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시골에서 몇년간 살다가 뉴욕하스피탈에서 의료검사원 훈련을 받고, 동병원 검사요원으로 근무중병원측의 실수로 결국 장님의 신세가 됐다.

솟장에 따르면 당시 김여인은 눈이 몹시 아프고, 머리가 깨지는 것같아 병원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동병원 응급치료실에서 진단을 받았다. 결국 독감으로 오진되어 집으로 보내졌는데, 이로써 실명이 된 것이다.

그녀의 변호사 호로위츠씨는 "녹내장은 안질을 즉시 치료받아야 하고, 치료받으면 능히 고칠 수 있는 병이다. 10시간 이내에 치료하는 것이 좋고 적어도 48시간 안에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여인은 실명후 76년3월부터 12번의 수술과 80년까지 6번의「레이저 빔」치료를 받았으나 잃은시력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거듭된 수술 때문인지 가끔 기억력이 흐리고, 나이에 비해늙어 보였다.

김여인은 병원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아무 원한도 없읍니다. 나는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의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하고 관대하게 답변했다.

전쟁통에 홀로 건너와미국사회에 파묻혀 살아온탓으로 한국말을 거의 못하며, 한국인 친구라고는 실명전 같은 아파트에 살던 미스터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나 이사해서 지금은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김여인도 실명전「아리랑」식당에 가서 한국음식을먹긴 했으나 요즘은 한국음식을 먹고 싶어도 요리해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

김여인은 집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미국인 간호보조원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한다.

김여인은 실명후 아파트에서 아침에 일어나 약을 먹고, 신체단련기로 체력을 증진하는데 하루를 보내고 있다. 실명전에는 탁구와 테니스등 스포츠를즐기고, 취미로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뉴욕병원측이 뉴욕주지방법원의 에드워드·그린필드 판사 주재로 열린 「라이어빌리티」의 범위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맬프랙티스」(의료상의 과실)를자인함으로써 양측의 변호사들은 8일 550만달러의 보상금에 합의, 소송을 매듭지었다.

김여인은 실명된 76년이래 요크·애비뉴의 아파트에서 개인저금과 사회보장연금및 월 4백달러의 병원측 연금으로 생활해 왔다.

◇배상금 $550만을 타게 된 김정숙 여사.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논설위원에 김정근씨

역사·이민 전공의 학자

◇김정근씨

역사, 특히 이민사전공의 김정근씨(43)가 본 토론토 한국일보사 논설위원으로 위촉됐읍니다.

곧 토론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김씨는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 유려한 문체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논평을 가함으로 이민사회의 정신적 지표를 제시해줄 것입니다. 이제껏 본보 사설은 이석현 편집장이 전담, 부담이 컸었읍니다. 「이민사회와 교육」, 「이민문화의 가능성」,「동양과 서양의 만남」등에 관심이 큰 김정근씨는 한국사및 캐나다 이민사회연구의 권위자로 특히 캐나다 한인이민사회에 관해서는 남다른 애정으로서 많은 자료 수집및 연구를 계속하고있는 선비이기도 합니다.

김씨는 64년 서울대문리대대학원 졸업(영문학), 73년 미국 일리노이주 로자리대학대학원, 75년 뉴욕 콜럼비아대학 박사과정 수료(도서관학), 79년 토론토대학에서 아세아·북미관계사를 연구, 박사과정을 끝내고 「냉전 체제하에서 아세아적 이유민(移流民) 현상에 대한 연구」란 제목의 박사논문을 제출했읍니다.

한국서 성균관대학 강사로 있으면서 동 부설 대동문화원(한국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한 김씨는 현재온타리오주 이민사연구소 연구원및 동 부설 도서관장으로 있고, 부인 이정원 여사(문협회원)와의 사이에 1남을 두었읍니다.

실업률 높아지자 취업에 인종차별

실업사태가 악화되자 인종이나 민족 배경으로 한 인종차별이 증가하고 있다고 메트로·토론토 사회계획위원회가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80년과81년 2년간 온타리오주 에서 발생한 893건의 인권위반건수중 40%가 고용에 있어 인종차별이었다.

실예로 한 흑인여성이 식당 웨이트리스로 일하려다 거절당한 경우와 인도인정비공은 작업도중 백인동료로부터 놀림을 받고도 일을 잘못한다는 거짓보고가 기록되 해고당한 경우도 있다.

인권위가 개입되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식당주는 $84를, 인도인을 해고한 회사는 $704를 벌금으로 물었다.

또한 온타리오 노동연맹도 최근 세미나를 통해 실업률 악화로 직장에서 인종차별이 심해져 소수인종에게는 "취업의 기회는 가장 적고, 해고의 기회는가장 많다"고 말했다.

한 보고에 의하면 토론토의 웨스트·인디언(자메이카등 서인도제도 흑인들은 토론토주민 평균임금보다 연 $2,400씩 적게 받고 있다.

◇국립발레학교에 입학하기를 꿈꾸는 꼬마 발레지망생들의 표정은 심각하다. 14일 토론토에서 열린 테스트에서 미래의 발레리나들은 손톱을 깨물며, 또는 눈을 지긋이 감고 테스트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5~12학년생들을 훈련하는 국립발레학교는 커렌·케인, 나디아·풋츠, 베로니카·테난트등 발레스타들을 배출했다. 작년에 이 학교는 전국 27개 시에서 864명의 아동을 테스트, 이중 98명을 여름학교에 임시 입학시켰다가 이중 43명만을 풀·타임 학생으로 최종 선정했다. 「좁은문」이었다.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오.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개업인사

김명숙회계사무소
(Kim's Associates)

안녕하십니까? 닥아오는 TAX시즌에 대비해서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자 2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마련했읍니다 Tax Return, Bookkeeping, Accounting등 제반회계 업무와 세무및 경영상담등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왕림하시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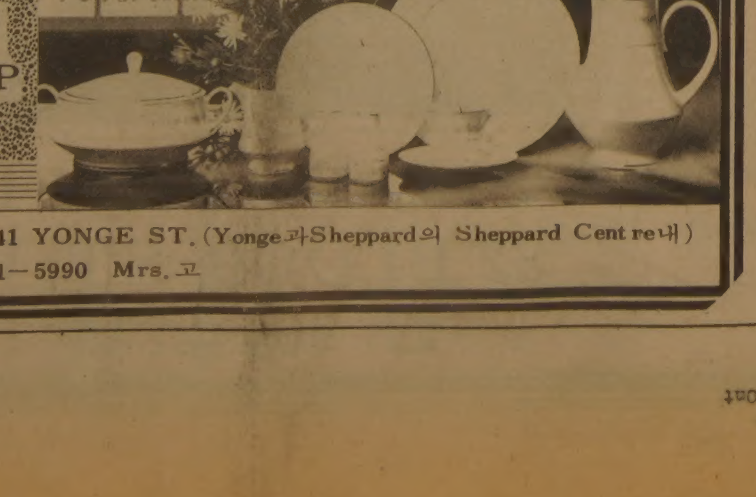
약력 : 1974년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
Algoma 대학교 회계학 전공
5년간의 C. A. Firm근무
현재 C. G. A. Undergraduate(5th Level)

484 BLOOR ST. W.
(강찬영변호사 사무실내)
☎ : B(537-3171 R(669-2710

춘계 대방매
(NORITAKE DINNER SET)

*토론토 내에서 EATON'S와 SIMPSON'S 그리고 저희 AMIK 세곳에서만 특별히 작년 가격으로 재고가 떨어질때까지 판매하고 있읍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작년세일가격+5% OFF 합계 작년가격의 35% OFF이니 가격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가게에서 구매 하세요.
*기타 많은 NORITAKE제품 세일 중입니다. 일차 왕림 하시어 무엇을 싸게파는지 구경오세요.

AMIK
CRAFT
SHOP



상점소재지 : 4841 YONGE ST. (Yonge과Sheppard의 Sheppard Centre내)
전 화 : 221-5990 Mrs. 고

종합보험

김 흥 량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美「韓國로비」세계7位

國務省등록 에이전트 32명… 日本82명이으뜸

"輸出억제 완화·武器판매등 남의 나라 利益을 위해 활동"

미국의 전직고관, 의회출신인사들로 외국정부의 로비활동을 벌이는 정식에이전트중 한국정부를 위한 에이전트는 세계71개국가중 7위인 32명으로 나타났다.

시카고트리뷴지에 의하면 현재 미법무성에 등록된 이들 에이전트들은 매년 그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또 이에따르는 보수액수도 막대한것으로 밝혀졌다.

이기사는 또한 이들은 미국자체의 이익보다는 남의나라 이익을 위해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중 전직 교통장관인 브록아담스는 일본의 수산업관계를 위해, 상원외교분과위원장이었던 프랭크처치및 상원의원출신인 윌리엄·풀브라이트 역시 일본의 중요 상품의 대미수출억제 완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외에 중진국과 후진국들을 위한 에이전트들은 무기판매의 길을 트기위해 노력하는등 거의 세계모든 주요국가의 이익에 관계되고있다.

한편 법무성당국에 등록된 세계 71개국의 에이전트중 비교적 그숫자가 많은 국가는 다음과같다.

▲일본-82명 ▲멕시코-45명 ▲캐나다-35명 ▲프랑스-33명 ▲소련-33명 ▲한국-32명 ▲영국-32명 ▲대만-29명 ▲오스트렐리아-24명 ▲남아연방-22명.

북한비난 성명서

LA지역 10개단체서

남가주한인회등 10개단체는 남가주지역 한인단체들과 공동으로 전두환대통령 암살음모사건에 대해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25만 남가주교포를 대표한 한인회 및 한인단체들은 고려연방제라는 표면적인 평화방안을 제시하는 북한이 친북한인물을 앞세워 3국인(캐나다)을 포섭, 테러행위및 한국정부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국내외 동포를 현혹시키려는 북한의 행위를 규탄했다.

한편 남가주한인회는 이 성명서를 영문으로 번역 UN본부와 주UN북한대표부, 미국및 캐나다내 유명 언론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3개항의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대통령 암살음모사건은 북한의 근본적인 외도가 무력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평화통일에 역행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최근 미주교포사회내에서 증가되고 있는 용공적언동과 무책임한 행동이 북한의 흉계에 직접, 간접으로 이용당할수 있음을 깨닫고 민족장래를 위해 일치 단결해야된다.

▲전대통령이 제안한 민주적화통일방안을 북한측은 하루빨리 채택하여 모도 흉계를 버려고 평화통일대열에 참가할것을 촉구한다. 남가주 한인회 7인위의 김명균대표가 밝힌 성명서 참가 단체는 다음과 같다.

▲남가주한인회 ▲코리아타운번영회 ▲재향군인회 ▲상공회의소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 ▲재미체육회 ▲경제협회 ▲부인회 ▲나성무역관 ▲한국노인회.

"맥도널드가 제일맛있다"

내셔널 인콰이어러誌 조사 결과 빵이 他社제품보다 優秀하다 判定

맥도널드의 햄버거가 가장 맛있는 햄버거로 뽑혔다.

주간신문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라트거스 대학 식품과학연구소에서 11명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실시한 테스트에서 맥도널드 치즈버거가 10점만점에서 5.4점을 얻어 최고를 기록했다.

버거킹과 웬디즈의 치즈버거는 5점동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맥도널드의 햄버거들은 특히 빵이 다른것보다 우수하다고 평했다.

일반 큰 햄버거 테스트에서노 맥도널드의 빅맥은 7점을 받아 수위를 차지했고 웬디즈의 다블은 6.7점, 버거킹의 워퍼는 5.3점을 각각 얻었다.

단기 투자이윤 20% 2위는 5년 모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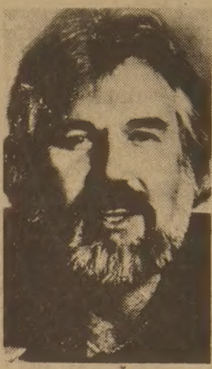
—81년 투자소득 순위

이자율이 높았던 작년에는 금융투자가들에게는 나쁜 해였으나 한 그룹만은 20% 정도 더 이득을 보았다

이 그룹은 연방재무성발행 국채등 단기형 유가증권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런 단기투자는최소 10만달러 이상이 피요하므로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만 가능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부채질했다

두번째로 이득이 높았던 투자는 5년만기 모기지로 년 10.5%의 이윤을 올렸다



▲케니·로저스

<법률상식>——<上>

체포와 당신의 권리

본의아닌 실수로 당신이나 가족 또는 친구중에경찰관에게 체포당하는 수가 있다 체포당했을때 어떤것이 피의자의 권리이며어떤 것은 권리로 행사할 수 없나 하는 것을 알아둠이 좋다

온타리오에서는 대부분의 체포는 형사법(Criminal Code)에 의거 행해진다 이것은 주입명권에의해 집행되는 연방입법이다 이밖에 다른 연방법(예: 세관및 물품세법)과 주입법기관의 특정법(예: 도로운송법)에 의해서도체포가 가능하다 이 난에서는 형사법하의 체포규정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경관이나 법적권한이 있는 사람이 피의자에게 "체포한다"고 선언한 후 행동의 자유를 빼앗거나 구금할때 법적으로 체포된 것이다.

경관이 체포한다고 말할때 피의자는 순순히 복종하는것이 좋다. 체포가 합법적이건 비합법적이건 상관없이 경관은 그렇게 하는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피의자의 도주를 막기위해 필요한 무력을 사용할수도 있다. 경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나중에 법정에서 싸울수있다.

체포는 영장과같이 혹은 영장없이도 될수있다. 영장없이 체포될경우 자기가 체포되는 이유를 들을권리가 있다. 영장에의해 체포될때는 영장이나 그 사본을 볼권리가 있다. 그러나 당신을 체포하는 경관은 영장사본대신 영장이 있다는컴퓨터의 기록만 갖고있다. 영장은 경찰서에서 당신에게 보여진다.

영장에의해 체포될경우 경찰은 당신을 가능한한빨리 법정에 회부한다. 보통 그다음날 회부하는것이 상례다. 대부분의경우, 분석을 결정하기위해 보석재판이 열린다. 범법자를 체포한경관은 사후법정출두를 조건으로 석방하느냐 아니면구금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신원확보의 필요성, 범행의 계속성 여부가 고려된다.

경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경관이 구류를 결정했으면 지체없이 경찰서로 범법자를 데려가야한다. 경찰서에서는 담당경관이 당신을 유치장에 감금할 것인가 혹은 예정날자에 법정출두약속에 당신이 싸인해야 할것인 것인가를 고려한다.

만약 구류될경우 당신은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와 보석청문을위해 판사(Judge)앞에 나서야체포될당시 경관은"왜 이런 짓을했나"등 기본적인 질문 몇몇을 범법자에게 던질 것이다. 이같은 질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 가해지는 기소내용이 크게 달라질수있다.

체포됐을때 범법자는 즉시 변호사를 면담할 권리와 침묵권이있다. 실제로는 경관에게 요청할때만이 이러한 권리를 가질수있다.

당신은 최소한 신원과 거주지는 경관의 물음에 대답해야한다.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밝혀질때까지석방되지 않는다. 변호사와 상담하기전에 절대로사건에대해 유죄 무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말아야한다. 피의자가 진술한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모두 기록돼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당신에게 불리한증거로 이용될지도 모른다. 비록 경찰이 당신의말을기록하지 않았어도 나중 재판에서 인용할수있다.

체포됐을경우 먼저 당신의 신원을 밝힌후 변호사와의 면담을요청해야한다. 당신은 사사로이 법률고문(변호사)을 고용하고, 그에게 통지할 권한이있다. 당신은 변호사와 접촉하기위해 마음대로 전화를 사용할수있다. 당신의 변호사는 보통 개인적으로 당신과 상담하기위해 그가 경찰서에 도착할때까지 아무말도 하지말고, 어떤 서류에도 싸인하지 말라고 할것이다. 당신은 이같은 변호사의말을 경찰에 알려야한다.

(계속)

訂 正

10일자 2면 와이즈멘즈·클럽기사중 앙로원 건립위원장을「김명규」로 기재한 것은 천중환씨의 잘못이옵기 바로 잡습니다

「世界굶주림賞」을 마련

億萬長者 歌手 케니로저스, 百萬弗기증 발표

世界속 饑餓현상 深層보도 言論人 시상토록

〈애틀란타-UPI〉 억만장자 칸트리 싱거 케니·로저스는 세계의 굶주림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인을 위한 시상기금으로 1백만달러를 기증하겠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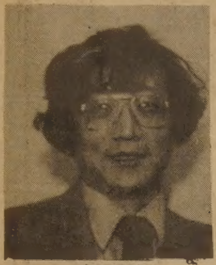
「World Hunger Awards」(세계굶주림상)라고 불리워질 이상은 매년 추수감사절 직전의 금요일에 수상자를 발표, 상금을 줄것이라고 로저스가 말했다.

로저스는 이날 NBC-TV의 투데이 쇼에 나와 이와같이 밝혔다.

연간수입이 2천만달러로 추산되는 로저스는 역시 가수이며 작곡가인 친구 해리·채핀을 통해 세계의 굶주림 문제에 관심을 갖게되었다고 말하고 언론인들이 굶주림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굶주림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게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축설계사무소 차려

토론토교포 연상만씨



◇연상만씨

오랫동안 건축관계 회사에서 일해오던 토론토교포 연상만씨(36)가 독립으로 건축설계사무소를 차렸다.

72년 이곳에 이민와서로빈슨·하인리히 건축회사와 퍼커슨·메일로·시멕·클라공업건축회사에 다년간 몸담은 연씨는 최근 소정의 시험에합격, 온타리오 건축가협회(Ontario Architects Association)정회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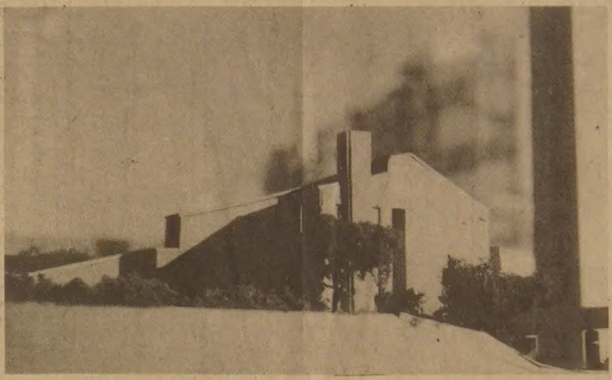
연씨는 경기고, 서울공대 건축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민오기전 구조사 설계사무실에 근무했으며,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메스터·플랜팀의 일원으로 일했었다.

연씨는 교포들의 많은협조를 부탁하며, 흔히 교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축설계사무소는 주택이나 빌딩설계만 하는것이 아니라, 건축상의 모든 법규에 대해 상담도 맡는다고한다.

연씨는 서울음대와 대학원에서 첼로를 전공하고현재 이곳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부인 연경희(33)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있다.

연씨의 사무실 주소와전화번호는 아래와같다.

161 Eglinton Ave. E. Suite702, Tornnto
Tel. 484-4895, 484-6110



◇연씨가 설계한 피커링의 교포 C씨집

가정의 벗 한국일보

LE SALON

PAT(YONG-SOOK)PAK

HAIR DESIGNER BY PAT

CUT & STYLING	$30
STYLING	$ 16~20
COLOUR	$ 20~50
PERM, CUT & STYLING	$ 65~80
PROTEIN TREATMENT	$ 7~15
HENNA	$ 27~35

SKIN CARE SPECIALIST BY LOUISE

FACIAL	$ 35 -40
EYELASH TINT	$ 12
EYE BROW ARCH	$ 7
MANICURE	$ 8
PEDICURE	$ 15
LEG WAX	$ 25~40
BIKINI OR UNDER ARMS	$ 12
FACE WAX	$ 18

화장품 판매

MADE IN FRANCE YANKA

※시간예약을 하실때는 리셉숀에 하여 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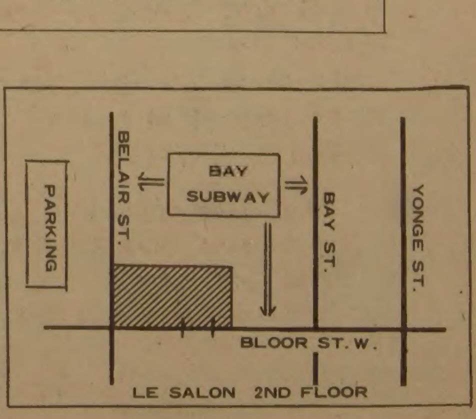
LE SALON 2ND FLOOR
82 BLOOR ST. W.
☎: 964-2715

경 력

1945년11월22일 인천출생
1964년 서울여자예림 미용기술학교 졸업
1970년 서울명동 라메르 미용실근무
1972년 토론토 MICHAEL KLUTHE BEAUTY SALON 근무
1976년 토론토 GUS CARUSO'S SELF-EMPLOYER
1982년 토론토 LE SALON SELF-MEMPLOYER

APPOINTMENT HOUR

TUE	9 : 30~5 : 30
WED	9 : 30~5 : 30
TRU.	9 : 30~6 : 30
FRI.	9 : 30~4 : 00
SAT.	9 : 00~3 : 00



미용코너

박용숙(미용디자이너)

◇박용숙 씨

PERM & COLOUR

피마나 칼라를 미용실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것—

◇칼라 : 집에서 생각하기엔 머리가 더러우면 칼라가 잘 안든다고 하는데 미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재료들은 시중에서 피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칼라하기 전에 샴푸가 피요없으며…

◇파마 : 미용실에서는 SCARLP에 자극을 안주게간단히 샴푸를 하기 때문에 머리에 대한 걱정은 항상 전문가들이 맡아서 처리하게 맡겨야 한다

HAIR

외국인 미용실에 갔을경우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서 표현해야 하는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운 말들을 잊고 지낼 때가 많다 아래와 같은 용어들은 보토 미용실에 1주에 두번씩 드나드는 손님들과 미용사들 사이에 오가는 아주 재처있는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은 외국인 미용실에 갔을 때 사용하면 여러 면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빨리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CUT—긴 머리를 짧게 또는 완전히 스타일을 바꿀 경우엔 HAIR CUTTING.

●SHAPE—머리형태가 아무리 손질을 해도 원하는스타일이 아니될 때 다시 자르는 것을 HAIR SHOPING

●TRIM—현재상태에서 스타일은 좋은데 머리가 조금 자랐다든가 손질하기가 어려울 경우 3~6주에 한번씩 다듬어 주는 것이 HAIR TRIMMING.

●LINE—머리를 빗었을때 산뜻하면서 항상 스타일에 굴곡이 있어 얼굴형에 몸 전체에 또한 두상에 어울렸을때 이것을 바로 BEATIFUL HAIR LINE이라고 한다

10분간 파마손질법

피마가 유행화되어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부드럽게 보일 수 있을까? 꼭 전문가의 손만 의지하지 말고 집에서 간단히 손질하여 어떻게 하면 자연스런 머리를 지닐 수 있는가 노력하여 보자

HAIR CUT이 잘되고 PERM이 잘되었다면 이러한 머리는 손질에 따라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긴 시간이 피요없으면서 아침에 간단한 손질법을 배워 그날 하루를 즐기도록 항상 몸에 익혀두자!

●SHAMPOO—이틀에 한번씩 머리를 감은 후 단단한 영양제를 머리끝에만바른다

●WET—젖은 머리는 굵은 빗으로 곱게 빗은후 타올드라이를 한다 타올은 완전히 마른 것보다 축축이 젖은 것이 머리의 물기를 빨리 흡수해 주기 때문에 꼭 마른 타올만을 사용할 피요가 없다

●DAMP DRY—타올로 머릿속을 골고루 비벼주면서 말린 후에 거울을 보고 머리형을 손으로 또는 굵은 빗으로 원하는 형태를 만든다 물기가 거의 없을때는 어느 스타일을 하든 머리결은 손질하는 곳으로간다

●DRY—CURL 컴을 원한다면 HAIR BRUSH 는 금지.

특히 마른 머리는 빗을 대지 말 것이며, SPRAY LANOLIN이 있는데, 이것을 머리 가장자리에 살짝 뿌려준다면 머릿결이 한결 광채가 나며, 굵은 빗 아니면 손으로 아름다운 스타일을 만지면서 PERMANENT WAVE를 마음껏 즐겨보자.

◆검사되기엔 너무 미인—25세의 니콜트·템플러양은 아틀란타 콥카운티에서 소비자사기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모델도 겸업하고 있는 템플러검사에 대해 피고측 변호사들은 판사에게 불평을 토로했는데 내용은 『재판때 마다 그녀의 뛰어난 미모에 최면당해 제대로 일을 할수 없다』는 것.

讀者漫評

◇'너무 비틀었어' 中京笲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 첫,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三國志 333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⑰

고마태오(종욱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보좌신부의 첫 시련

"아 웃기지 마라 중국놈 신부야! 네 어설픈 수염나며로 빨간 두뺨과 귀공자같은 순진한 모습이 네놈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네놈이 뭐 군인이었다고, 전쟁을하고, 부상도 당하고, 군인특무상사였었다고?…신부놈이 거짓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벌받아 지옥으로 곤두박질 떨어져 망해버린다!"

"네놈의 입으로는 절대로 하느님이란 말도 하지 말라. 그것은 거짓말 이상으로 불경스러운 죄가된다. 잔말말고 어서 술잔두개만 가져와! 한잔 나누며 내가 군인이었고, 또 전쟁도 치렀으며 부상당한 경험도말해주마."

"너같은 맹랑한 신부 내 일생 처음 봤다. 하여튼일거리가 없어 심심하던 판에 웃음거리가 하나 생겨 다행한 일이다. 그래 한잔하며 내놈의 말 들어주마."

그는 부엌으로 술잔을가지러 갔다. 잠시 방안을살펴보니 구석구석 가난이째들어 보였다. 살림 가구도 변변치 않았다. 방안에 단 하나 놓여있는 쏘파는 때가 묻을대로 묻어 있었고, 그것도 헤져서 속살이 터져나와 있었다. 그때 부리노는 술잔을 가져다 탁상위에 놓았다. 그리고 쏘파에 앉을 것을 손짓으로 권했다. 그때까지 나는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 나는 술잔에 술을 가득히 따르며 입을 열었다.

"어때, 옛날솜씨를 발휘해 이 술을 단숨에 마시기로 할까?"

"좋아, 아주 제법인데…."

그는 말을 마치자 그 독한 술 한잔을 단숨에 마셔 버렸다. 나는 술 반잔을 가까스로 마시고, 술잔을 탁자위에 놓았다. 생각한만큼 술이 받지 않았다. 나는 다소 불안한 표정으로 부리노를 바라봤다.

그는 빙그레 한번 웃더니 입을 열었다.

"네놈의 쌍말과 술마시는 품이 네가 군인 생활을 한 것을 말해주는 것같으나 역시 네놈은 신부구나. 그까짓 위스키 한잔 단숨에 비우지도 못하고…."

"옛날에는 술 한병쯤 은 문제 없이 마셨네마는 이젠 자신이 없어. 그러나 자네가 정식으로 술시합을걸어오면 난 자네와 맞서 보겠네."

나는 술기운에 갑자기가 빠지는 호흡을 조종하며조용히 말했다. 하여튼 나는 오늘 부리노와 대결해서불승패로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에게 져서는 안된다고 마음속 굳게 다짐했다.

"뭐, 술시합을 해보자고? 술시합이라면 그건 명예로운 직업처럼 되어 있는 내 일거리라네. 그런데 덩치는 황소같이 크다마는 너 같은 애송이 신부놈하고내가 술시합을 해? 당치도않은 소리야."

"자네와의 대결은 이제 막 시작한 것뿐이네. 전법에 작전상 후퇴라는 용어가 있듯이, 내가 이 술잔을 단숨에 비우지 못한 것은 내 작전일 뿐일세. 그럼 자네 나하고 오늘 술시합을 정말 해보겠나?"

"잔말말고 그 술잔 이나 빨랑 비워!"

나는 그가 말을 끝내자마자 술잔을 들어 한숨에 마셨다. 그때 이상하리만치 나는 술이 받기 시작했고, 술맛이 입에 당기기도 했다. 이번에는 부리노가 술병을 들고 술잔에 술을 가득히 따랐다.

"자, 그럼 이번에도 단숨에 술잔을 비우기로 할까?"

내가 술잔을 들고 그에게 말했다.

"그러지 말기로 하세. 뭐 술이 원수인가. 그렇게 술을 축칠 필요야 없지 않는가. 오늘 우리 둘이 공평하게 마시며, 우리 서로가 느끼는 취기를 감정해 승부를 따지기로 하세나."

뜻밖에 그는 말까지 부드럽게 하며 내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한 그의 태도는 여유만만해 보였다. 그리고 그는나에게 인간적인 친근감을 갖기시작하는것 같았다.

"그러기로 하세. 예술을 감상하는 그러한 식으로술을 마셔야 한다고 나는 평소에 생각하고있네. 폭주가가 아닌 애주가의 자세로 말일세."

"그것 신부들이나 하는 말이야. 그런 문화인다운말을하면 난 술맛을잃어. 술이란 있는그대로 마시고, 취하는기분이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난 네가 좋아지네. 네가 신부라는지 위에서 오는 부루죠아든문화인이든 상관없어. 내 마음이 너한테 가고있네그려."

그때 그의두 시선은 나에게 뭔가를 갈망하는것 같았고, 그의 표정에는 벗이없는 한인간의 고독이서려있었다. 나는 그러한 그의심적 변화를 만족하게받아들였고, 주님께 감사했다. 그리고나는 그에게 친근감을 더 드러내는 표정으로 입을열었다.

"좋도록 하게나…술을감상하든 퍼마시든 자네기분에 맞추에 마시게나. 오랜만에 위스키를 마시지만오늘은 술맛이 나는데…. 역시 술이란 술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마셔야해."

(계 속)

제일여행사

사무실이전공고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사무실을 하기주소로 확장이전하옵고 그간 교포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다나은 봉사를 위해 신용목 선생과 함께 일하게 되었사오니 배전에 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고 아래와 같이 자축기념 파티를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2년3월20일(토)오후2~6시

주소 : 649A BLOOR ST. W.(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전화번호는 전과 동일합니다

유지원·신용목 배

장학생 선발공고

Scholarship for Korean Students

본재단은 제4차 장학생을 선발코저 하오니 많은 학생이지원하기를 바랍니다.

1. 대상자 : 1982—83년 학년도 대학교, 전문학교, 혹은 대학원에서 수학할 학생.
2. 선발분야및 인원 : 가. 일반분야 4명, 나. 신학생 1명
3. 장학금액 : 일인당 $1,000
4. 구비서류 : 가. 지원서(본재단 소정양식), 나. 최근2년 성적증명서, 다. 학교선생 2인 추천서, 라. 한국인 일인 추천서, 마. 자기소개와 장래의 포부를 기초한 수필. , 바. 6개월안에 찍은사진 4매

※ 주의사항 : 모든서류는 영문으로 기재할것(한국인 추천서는 제외) 원본과 사본 일매를 제출할것.

5. 신청마감 : 1982년4월10일
6. 원서지급요청및 서면문의(Inquiry)

Korean Canadian Scholarship Foundation C/O Dr Y·Lee
30 Humbertown Centre, Suite 9. Islington, Ontario, M9A 3T7

전화 : 233—9301(이영일), 789—7544(문인식)

캐나다한인 장학재단

Korean Canadian Scholarship Foundation

이사장 : 구 상 회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기름값 평균2.82% 引下

나프타11.6、벙커C2~4%
LPG·부탄가스10.6%씩
오늘부터

국내기름값이 내렸다. 정부는 11일0시를기해 국내석유제품가격을 평균2·82%인하 한다고 발표했다. 석유값 인하는 정부가 64년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을 결정, 고시한이래 처음이다. 李宣基동자부장관은 10일▲석유화학공업제품의원료인 나프타가격을 ℓ당 1백75원74전에서 1백55원35전으로 11·6%를 ▲가정용프로판가스가격을 kg당9백15원에서 8백18원으로 ▲LPG택시용 부탄가스가격을 8백5원49전에서 7백20원03전으로 각각 10·6%씩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나프타(ℓ當)	175원→155원
LPG(kg當)	915원→818원
부탄(kg當)	805원→720원
벙커C(ℓ當)	211원→207원

◇벙커C는 보통기준·부탄은 일반용 소비자가격。

安定基金 70센트로…高價油 支援없애

李장관은▲산업용 에너지인 벙커C油가격을 ℓ당 2백11원49전에서 2백7원27전으로 2%인하시켰고▲아파트난방용으로 사용되는 低硫黃벙커C油가격을 2백34원85전에서 2백25원56전으로 4%를 인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油價단일화로 국제원유값이 내림에따라 국내기준원유가격이0·6%、석유안정기금의 폐지를 전제로 한 제도개선으로 2·7%, 국내판매가격보다 훨씬싼 LPG수입에따라 정유회사에 발생하는 초과이익분의 인하로 2·3%등 모두5·6%의 인하요인이 발생했으나 환율상승등으로 2·8%의 인상요인을 안고있어 이를 차감한 2·82%를 인하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같은 인하재원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못하고 고전하고있는 석유화학업계등 산업의 국제경쟁력을높이도록 납사가격과 벙커C油가격을내리고 공해가없는 연료인 가스보급확대를위해 LPG가격만을 내리고 다른油種의가격은 그대로두기로 했다고말했다.

그는 오는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OPEC특별회의에서 油價를 내린다든가 해서 세계원유값이내리면 소폭이라더라도 국내기름값도 내릴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자부는 이번에 기준원유가보다 비싼원유를 도입하는 정유회사에 보전해주기위해 배럴당 2달러30센트씩 징수하던 석유안정기금제를개선、앞으로 배럴당 70센트씩만징수하기로 했다.

석유안정기금제도는 동자부가 정유회사에 보전해주지못하고있는 1천4백억원이 내년2월까지 해소되면 완전히 폐지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에 이제도가폐지되면 배럴당 징수액 70센트만큼 유가를 내릴수있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자부는 석유안정기금제도를 폐지하는대신 모든 도입원유가격을 평균한 복합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제품의원가로 삼아 제품가격을 산정, 판매토록해서 싼원유를 들여오는 정유회사는 이익을、비싼원유를 들여오는 정유회사는 赤字를 보도록해서 싼원유의 도입을 촉진시키기로했다.

◇유통단계별 판매가격

(원/ℓ)

구분		정유회사(세후)	대리점
유종별			
저유황벙커C유(1·6%)	현행	225·75	234·85
	조정	216·46	225·56
″ (2·5%)	현행	217·34	
	조정	209·96	
벙커C유	현행	203·32	211·49
	조정	199·10	207·27
나프타	현행	175·74	
	조정	155·35	
프로판(일반용) (원/kg)	현행	740·82	812·45
	조정	662·22	726·27
″ (도시가스용) (″)	현행	455·25	
	조정	406·95	
부탄(일반용) (″)	현행	738·71	805·49
	조정	660·33	720·03
″ (도시가스용) (″)	현행	453·64	
	조정	405·50	
저유황경질중유(1·6%)		224·28	232·19
저유황중유(″)		220·32	228·42

▲프로판가스일반용 주유소가격은 kg당9백15원서 8백18원으로 인하。

與野、特委案싸고 계속對立

쌀導入스캔들 民韓、經科委부결땐 本會議상정

국회는 9일밤의 農水産委에 이어 10일하오 經科委를 열고 미국米穀업자의 對韓쌀 판매에따른 6백만달러 賂物受授說에대해 金埈成부총리와 金周浩조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다.

經科委는 이날 보고를 들은뒤 정책질의를 할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이 요구하는 관계자료가 제출된뒤 11일 정책질의를 통해 眞相을 추궁하기로했다.

그런데 民韓黨은 10일새벽 2시 農水産委에서 제의했다가 否決된 쌀스캔들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11일하오 經科委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나 民正黨의 반대로 또다시 否決될 경우 民韓黨은 常委에서 폐기된 特調委案을 (國會法제74조에따라) 의원30인이상의 서명을 얻어 本會議에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論難은 당분간 계속될것으로 보인다.

金부총리는 이날 經科委에서 보고를통해『미국서 도입키로한 50만톤의 약속을 이행치않을경우 국제신의에도 어긋날뿐만아니라 쌀의 武器化추세에비추어1천만섬의備蓄米를 확보하기위해서도 불가피한조치』라고말하고『우리나라가 상당량의 쌀을확보해놓지않을경우 凶作때 양곡을도입할경우에도 문제점이 된다』고말했다.

그는 또『外米도입으로 국내쌀값이 하락할 경우 피해를보는 농가를 위해서는 정부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구제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金周浩조달청장은『外米도입과정에 하등의 잘못된점이 없으며 조달청은 싼값으로 外米를 도입, 국가재정을 위해 노력했을뿐』이라면서『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쌀값은 계약당시의 가격에 의한것이 아니라 船積時의 국제가격으로 결정되기때문에 差額이라든지 부당이득이 있을수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앞서 農水産委는 9일하오부터 高建농수산부장관과 金周浩조달청장을 출석시킨가운데 쌀도입에관한 뇌물受授스캔들의 진상에대해 정부측보고를 들은뒤 10일새벽까지 徹夜회의를 벌였다.

농수산위에서는 이날 民韓黨이 제의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案은 民正黨이 반대하여 表決결과 찬성12、반대13、기권1표로 부결됐다.

600萬弗스캔들에 쏠린 野黨의 눈 눈 눈

◇「6백만달러 쌀스캔들」보도에관한 정부 고위책임자들의「事實無根」이라는 잇단 解明에도 야당의원들은 좀처럼 납득하기어렵다는 태도인것같다. 10일 국회經科委에서 民韓·국민당의원들이 다음날 질의에앞서 金埈成부총리와 金周浩조달청장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國會 9개常委 계속

文公委 "言基法남용소지" 改正案 제안설명

국회는 10일 外務·農水産·建設등 3개常委를제외한 9개常委를 일제히 열고 소관部處로부터 업무狀況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11일에도 常委활동을 계속하며 12일 常委日程을 끝내고 13일 본회의를 열어 常委에서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閉會한다.

法司委 李鍾元법무장관은『법률구조법을 제정、법률구조사업을 전담할 工團설립계획을 세우고있다』고 밝혔다.

그는『全斗煥 대통령의 危害기도 배후인물로 지목되고있는 崔泓熙의 신병인도요구는 캐나다정부와 犯人引渡협정이 체결돼있지않아 곤란하다』며『변호사의 開業地제한규정은 고칠생각이없다』고말했다.

李장관은 또『令狀청구에 신중을 기하고있어 영장기각률이 매년줄어들고있으며 법원이 실질적심사제도를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검찰도 앞으로 이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앞으로는 가능한 수사지휘검사가 영장을 청구토록하겠다』고 말했다.

商工委 徐錫俊상공장관은『浦項製鐵의 본사를 서울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며 한국重工業의 본사를 昌原으로 옮겨가는것은 한국重工業경영진이 조만간 결정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工團이 활용되지 않는것은 공단지원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하고『해외진출건설업체의 國産資材사용문제는 건설受注자체가 외국의 기술용역에의해 결정된것을 감안 기술용역監理까지 받아야하기 때문에 국산資材사용을 기피하고 있지만 정부는 매년 2차례 해외현장에 직원을 파견, 조정에 애쓰고 있다』고말했다.

文公委 民韓黨이 제출한 언론기본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날 李義永의원(民韓)은 제안설명을 통해『언론기본법중 언론의 公的기능의 보장과 관련된 조항이나 등록취소및 편집인등의 책임조항등에있어 언론에대한 자유의 보장보다는 오히려 公的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현저하여 平衡을 잃을 소지와 남용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改正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행언론기본법중▲언론의 정보청구권(제6조)▲위법한 표현물의 압수(제7조)▲取材源의 보호(제8조)▲등록의 취소(제24조)▲외국의 정기간행물의 기사(제28조)▲편집인등의 형사책임 조항(제53조)등 6개조항의 개정필요성을 역설했다.

社會漫評

◇「근로자의날」기념식에서 全斗煥 대통령이 勞使協調와 근로유공자들에게 훈장을수여하고있다.

"實質근로소득 보장에 最善"

全대통령 「근로자의 날」致辭서 강조

全斗煥 대통령은 10일『기업인들은 근로자들을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는 被고용인으로만 대접해서는 안되고 한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을 가져야하며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도 투철한 직업인의식을 가지고 능력향상을 위해 꾸준히 정진하는 한편 자신들이 산업발전의 主役이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일깨워야 할것』이라고·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10시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2년도「근로자의 날」기념대회에 참석, 致辭를 통해 이같이 강조한후 경제의 再跳躍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품질관리、생산성향상등 세가지 과업의 완수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일한만큼應分의 보상을 받는 [illegible] 수있는 정의로운사회의 건설이 國政指標중의 하나임을 지적해두면서 본인은 한편성실하고 노력하는 근로자들이 합당한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시책면에서 최대한노력하겠다』면서『근로자들도 생활방편으로 마지못해일한다는 소극적인자세를 떨쳐버리고 흘리는땀이 근로자 여러분의 삶을 값지고 보람있게 가꾸어간다는 天職意識에 투철해달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한 勞使협조가 이루어질때 비로소 우리가 지향하는 正義사회와 복지국가건설도 앞당겨 질수있을 것』이라고 밝히고『정부로서도 근로자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인 고용의 유지와 안정에 힘쓰는한편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보장될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펴고 노동운동이 건실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갈수있는 풍토를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우리가 지난날 거의 맨주먹으로 시작해 지금 이만한 국가발전을 이룩하기까지 근로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지대한 것이었음은 잘 아는 바』라고 상기시키고『특히 최근 수년간 세계적인 경제不況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시련을 겪고 우리의 근로자들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감수했다』고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全대통령은『1백만 조직근로자의 총본산인 한국勞總은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섬은 물론 국민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도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外米37만톤 入札연기"

金부총리 導入과정 不正없다"

10일 金埈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조달청이 이날 상오 시행키로 예정했던 外米37만톤 도입국제입찰을 外米도입不正介在說에대한 국민의 의혹이 풀리고 국회와 충분히 논의될때까지 연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그러나 연내美國産쌀 50만톤도입은 韓美양국정부간의 약속이므로 이를 지킬방침이며 국내쌀값안정과 비상사태에 대비、정부는 올연말 쌀비축량을 7백만~1천만섬으로 늘려나가야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外米도입과관련한 뇌물설에 대해 이미『지난연말 美의회議員 1백12명이 連署로 우리정부에대해 美國쌀구매와관련한 부당행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진정도있어 그동안 정부는 감사원이주축이되어 철저히 조사했고 그결과 外米도입과정에서 사소한 부담·부정행위도 없었음이 밝혀 진바있다』고 말했다.

美下院 청문회 對韓쌀 輸出추문

【워싱턴9日AP=聯合】미국의 쌀생산지출신하원의원들이 번주 하원청문회를개최、對韓쌀수출부정문제를따질계획이라고 스코립스·하워드·뉴스·서비스가 9일 보도했다.

地平線

해외여행이 쉬워지면서 값싸게 나들이할수있는 갖가지 방법을 알게된다。밤에타는비행기 값은 싸다든가、예약을 몇달전에하면 절반값도 안되는 비용으로 편한 왕복여행을 할수있다든가 하는것들이다。또 이른바 유레일패스라하여 유럽16개국의 철도는 區間이나 乘車回數、途中下車에 제한없이통용되는 周遊券도 널리 알려져있다。

▼한데 알뜰관광 여행과는 대조적이지만 웬만한 호화여행에 놀라지 않게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깜짝놀랄만한 호화여객선 퀸엘리자베드Ⅱ호가 어제 부산에입항했다 11시간만에 떠났다。승객1천4백74명、승무원 1천명을 태우고 80일간의 세계일주여행중 한국에 들른 이배의 관광객은 釜山을 비롯、慶州·通度寺등을 구경하며 동양의 신비를 만끽했으나 88올림픽개최지인 서울은 구경못한채 떠나 좀 섭섭하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남겼다。그대신 한국을 소개하는 팸플리트를 많이 가져갔는데 미리 서울관광을 교섭했더라면하는 아쉬움만은 여전하다。

▼6만7천톤의 이 배에는 13대의 엘리베이터、레스토랑4개、바6개、골프연습장、수영장、극장、나이트클럽、카지노까지 갖추고 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승선요금은 최고급이 22만5천달러(한화 1억6천만원)、특등실 5천만원、1인용보통실 1천5백만원、2인용 보통실 8백70만원이다。엄청난 값인 것이다。만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세계일주가 아닌 구간 승선도 가능한 모양이므로 몇해안가 우리나라 관광객도 더러 타는분이 나올것 같다。객실 9백79개를 가진 이 퀸 엘리자베드Ⅱ호는 늘 인공위성과 교신하면서 평균 시속52·7㎞로 안전항해하는데、특수장치가 돼있어 큰 파도에도 롤링을 3도이하로 줄여 일반 지상호텔과 같은 아늑함을 느끼게 한다。

▼식사때는 2백70명의 쿠커가 세계각국의 메뉴를 제공한다。홍차 40만봉지、코피 7·2톤、설탕 18톤、유아식 4천8백병、개 먹이 1·7톤、우유8만톤、게 3·2톤、과일 80톤、석고기80톤、야채 90톤、샴페인 8천병이 실려있다니 기가 막힌다。퀸 엘리자베드Ⅱ호말고도 올해안으로 우리나라에 도합14척의 대형유람선이 온다고한다。모두 크루즈=周遊觀光船들이다。

▼우리야 아직 釜山―濟州페리가 생긴지 얼마안되고 仁川―釜山觀光船이 검토되고있는 단계이지만 세계 第2의 船舶受注國으로 도약하고 있으므로 꿈의 宮殿인 호화여객선을 지을 실력이없는 것은 아니다。먼나라 곳곳에 태극기를 단 우리 비행기가 취항하고 있는만큼 국산 호화관광선으로 세계일주여행이 가능한 날도 그리 멀지 않았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성령교회 유월절대성회 1982.4.2～13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애굽나라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땅을 칠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찌라 내가 피를 볼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찌니라.(출 12：12～14)

내가 너희에게 전한것은 주께 받은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때 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때 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3～26)

너희는 누룩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하자. (고전 5：7～8)

세례(침례)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와 그리스도로 모셔 드리시는 분은 누구나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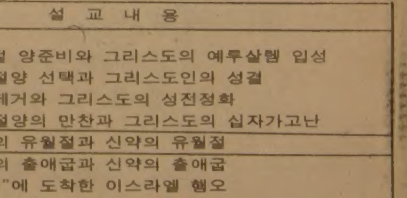
유월절은 최상최대의 명절이며 모든 위성절기의 태양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 십자가 수난의 상징이며 인류속죄구령의 보증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 탄생의 완성이며 당신의 신부교회 해산입니다. 유월절을 먹고 마시는 이에게 영혼의 쾌락이 소생하고 영생의 소망이 생동하며 평강의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뜻깊은 명절을 맞이하므로 신령한 하늘의 은사를 체험합시다.

〈유월절 대성회 일정표〉 담임목사 김 관 선

순서	월 일	요일	내 역	집회시간	설 교 내 용
1	4월2일	금	유월절양 준비	오후7시반	유월절 양준비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2	3일	토		오후7시반	유월절양 선택과 그리스도인의 성결
3	4일	일	회개 와 세례	오후2시	누룩제거와 그리스도의 성전정화
4	5일	월		오후7시반	유월절양의 만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고난
5	6일	화	유월절 / 성만찬	오후7시반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유월절
6	7일	수	무교절	오후7시반	구약의 출애굽과 신약의 출애굽
7	8일	목		오후7시반	"숙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행오
8	9일	금		오후7시반	바로의 변심과 질투
9	10일	토		오후7시반	불과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광야교회의 하나님
10	11일	일	말씀과 기도	오후 2 시	바로의 추격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11	12일	월		오후7시반	모세의 이적과 여호와의 영광
12	13일	화		오후7시반	이스라엘의 개가와 무교절끝날 축제

집회장소 : 성령교회

379 Kenneth Ave. Willowdale



不正선거규탄 示威군중에 發砲
과테말라 市街戰위기

大統領 재선거 요구에 軍警서 기관총등 射擊
3개 野黨후보·夫人·特派員등 12명逮捕

【과테말라시티10日UPI遞聯合】 과테말라 야당세력들은 9일 지난7일실시된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고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은 시위군중에 기관총과 최루탄사격을 가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폭동진압경찰은 이날 야당 대통령후보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연설을할 예정이던 센트럴광장에서 3백여m떨어진거리에서 데모대를 저지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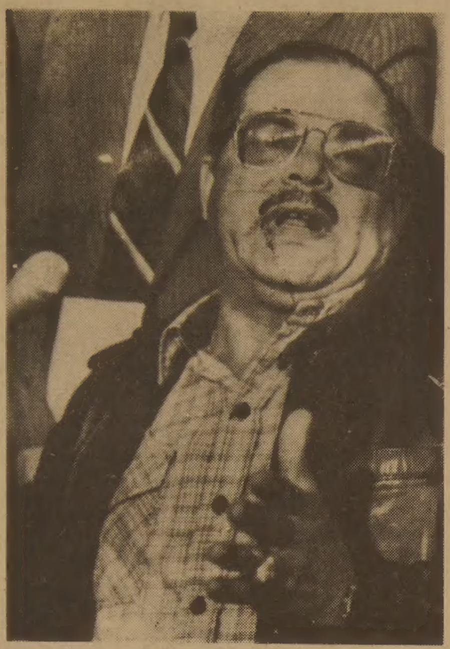
그러나 1천명이상의 시위대가 저지선을뚫고 전진하자 경찰은 권총과 기관총을 발사하기 시작했는데 경찰이 공포를 쏘았는지 아니면 군중에대해 직접쏘았는지는 분명하지않다.

집권인민민주전선(FDP)의 앙헬·아니발·게바라장군의 승리가 거의 확정된 이번 총선결과에 대한 야당의 이같은 도전은 4년전 역시 부정선거라고 비난받았던총선직후 발생한것과같은 시가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공포가높아가고있다.

3개 야당후보들은 60일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선거를요구하면서 9일하오5시(한국시간10일상오8시)를 기해 과테말라중심지에서 항의시위를 벌일것을 촉구했었다.

과테말라시티의 파블로사 방송은 이날 2명의 야당 대통령후보부인과 한부통령후보가 경찰에 의해 구타당한후 경찰차에 실려갔으며 9명의 외국특파원을 포함, 12명이 구타당하거나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極右 民族解放運動(MLN)의 마리오·산도발, 中道野黨聯盟의 알레얀드로·말도나도·아기레, 中道民族主義黨의 구스타보·안주에토·비엘만후보등 3개 野黨 대통령후보들은 시위장소로부터 수블록 떨어진 지점에서 경찰에 사로잡혀경찰본부로 연행되었다.



◇黨·政府옹호발언하는 과테말라 새大統領
야당들의 선거부정 발견과관련 자신의黨과정부를 옹호하고있다. 과테말라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안젤·아니발·게바라 장군이 9일 기자회견에서 【과테말라시티9日UPI遞=聯合】

아르헨서 反政府시위
公務員2百명 賃金凍結에 반발

【부에노스아이레스9日AP遞聯合】 레오폴도·갈티에리 대통령의 현 아르헨티나정부가 출범한 이래 최대 규모의 공무원들의 반정부시위가 9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발생했다.

약2백명의공무원들은 인플레율이 1백40%를 웃돌고 있는 경제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분야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한데 반촉, 이날 거리로 뛰쳐나와 소총과 최루탄으로 무장한 기동경찰과 한동안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들의 시위가 벌어졌을때 연도의 시민들이 그들을 성원했다.

목격자들은 기동경찰이 시위대가운데로 돌진하면서 시위를 강제로 진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5일 노동조합의 자유와 인권향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전단을 시내 중심가에서 살포한 2개 반정부그룹을 일망타진한바있다.

레이건、美CIA에
特攻작전을 승인
엘살바도르 背後조종 니카라과에

【워싱턴10日遞=聯合】레이건 美대통령은 엘살바도르의좌익전복활동을 배후 조종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니카라과에대한 CIA(중앙정보국) 특공작전을 승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레이건 대통령이 승인한 계획이 CIA로하여금 중남미인으로 구성된 5백명의 특공대를 조직하고 이들에게 자금지원을 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들은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국경지역에서 작전을 수행케할 것이라고말했다.

이 신문은 정통한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이 특공대가 조직돼 훈련을 마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것이며 이들은 궁극적으로 니카라과의 경제를 교란하고 정부의 주의와 지원을 딴곳으로 돌리도록 하기위해 발전소와 교량등 주요 목표물의 파괴를 시도할것이라고말했다.

뉴·리퍼블릭誌보도
口舌數 오른 와인버거
"아랍 오일달러와 너무밀착 美의 中東政策 비뚤게한다"

◇와인버거國防

【워싱턴10日遞聯合】 레이건 美행정부의 주요각료들이 계속해서 금전문제와 관련한주문으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와인버거국방장관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뉴·리퍼블릭誌는 최근호에서 「페트로·달러·콘넥션」이라는 본격적인 조사연구보고를 통해 와인버거장관은 과거 다국적기업인 벡테르社 부사장으로 있을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백억달러의 공사를 따내는등 사우디아라비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국방장관 취임직후에는 사우디에 조기공중경보통제기(AWACS)를 판매하도록 레이건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와인버거장관은 지난2월 中東방문때 美정부각료자격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요르단에 호크 이동식 對空미사일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親아랍 자세를 분명히 했다.

8일 공개된 문서는 와인버거는 벡테르社의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연봉75만달러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물론 합법적인 개입수입에지나지 않으나 문제는 와인버거장관이 아랍 오일·달러와너무 밀착함으로써 미국의 中東정책을 비뚤어지게 하고있는데 있다』고 비난했다.

이문서는 또 외회및 보도기관이 「와인버거-벡테르社-오일·달러-아랍」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요구했다.

파키스탄、原爆생산 임박
印國防省 소식통 ⅔道程… 試驗폭발 단계에

【뉴델리9日AP=聯合】 파키스탄은 원폭제조를위한 마지막 준비단계로 核장치를 폭발시키려하고있는것같다고 인도국방성 측근소식통들이 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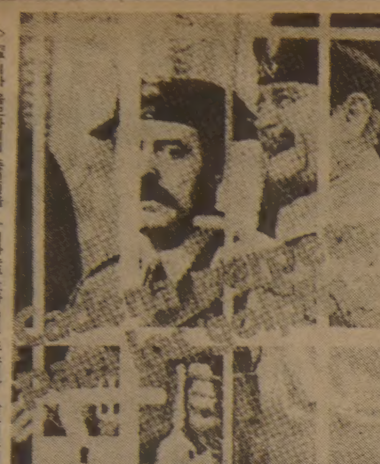
인도국방성 부설 의회자문위원회위원들은 이날 『파키스탄원폭개발현황』이란 제목의 45분짜리 기록영화를관람한뒤 『파키스탄은 원폭제조까지 3분의2의도정에 와있다』고 말했다.

이위원회 위원들은 파키스탄의 핵개발실적을보여준 이 영화 시사회에 M·R·벤카타라만국방상을비롯, 국방성고위관리들도 참석했다고 말했으나 이영화를 누가 어떻게 촬영했는지는 밝히지않았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카라치 부근의 파키스탄 원자력연구소에 있는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원폭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파키스탄정부는 원폭생산을 계획하고있지 않다고 공식 부인했다.

國王까지 끌어들인 政治재판
昨年2월 쿠테다주동 將校 32명·민간 1명 공판



◇『쿠데타 음모자에게 종신형을!』이라는구호가 적힌 포스터가 마드리드市내에 붙어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테헤로중령과 보시중장은 창살속 갈옥안에서 여유만만한표정이다.

만만찮은 스페인 極右세력
"王에 충성위해陰謀" 큰소리
刑務所엔 「격려膳物」 산더미
極刑땐 政府전복위험…관대하면 輿論악화우려

◇카를로스국왕

마드리드근교의 군사법정에서는 요즘 81년2월 쿠데타주동자인 안토니오·테헤로 등 장교 32명과 민간인 1명에대한 공판이 지난2월26일부터 12일째 계속진행되고있다.

사건발생1년만에 열린 이재판에는 민간인의 방청은물론 법정접근마저 금지되었고 보도진조차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군인이 군인을 재판한다는 군사재판특유의 폐쇄성 때문만이 아니다. 법정에선 피고인은 정부전복을꾀한 극우파 장교들이지만 진짜피고는 기회만있으면 프랑코式 독재정치의 부활을 노리는 군부내 극우파세력의 운명을 좌우하는 재판이기때문이다.

믿는게있는 피고들인지라 검사와 재판관의심문에 응하고 자신을 변론하는 입장은 오히려 당당하기조차했다.

거사 당시 발렌시아지구사령관으로 휘하병력을 동원하기도 했던 하이메·델·보시중장은 전복음모의배후에는 카를로스왕이 개입돼있고 자신은 국왕에 충성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기도했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이런주장은 스페인 민주화를 밀고온 카를로스 국왕을 이번 재판에 끌어들여 국왕에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속셈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건발생이후 1개월동안 재판을 열지못한 이유도 군부가 어떠한반응을보일지 정부가 불안했기때문이었다.

재판을 열어 주동자에게극형을 선고할경우 극우세력이 기도할지도 모를일이고 그렇다고 이들을 관대히 처벌할경우 민주화를 바라는 대다수국민의 여론이 악화될 소지가 있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스페인국민의 2~3%만이 프랑코체제로의 복귀를 노리는 극우세력을 지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작년2월의 쿠데타실패이후에도 새로운 쿠데타음모說이 꼬리에 꼬리를물었다.

계속되는 쿠데타說의 와중에서 테헤로중령등은 호화판감옥생활을 즐겨 다시한번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했다.

마드리드 외곽 군형무소에 수감된 테헤로 방에는 그를 격려하는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면회객이줄을이었다.

극우세력을 다스릴 확고한 수단을 갖지못한채 민주화로 가고있는 스페인의 딜레마를 잘말해주고있는 한단면이다.

작년 5월에는 수십명의극우파 무장괴한들이 스페인중앙은행 바르셀로나지점에 집단난입, 고객과 상인 3백여명을 인질로 잡고 수감중인 쿠데타주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또 12월에는 우익장교1백여명이 정부전복주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카를로스국왕의 군통수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도했다.

이때 카를로스국왕은 관련장교 1백여명을 병영에 연금시켜 사건의 확대를 막았다.

군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있고 스페인육사출신인 국왕이지만 아직은 군부내에 버티고있는 프랑코주의 장성들을 조심해 다뤄야할 입장이다.

카를로스국왕은 자신이 쿠데타에 개입돼있다는 보시중장의 증언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보시장군의 증언이 있은뒤 국왕은 사라고사에있는 육군사관학교 연설에서 『스페인에 민주다원사회를 가져다줄 정의와 자유의길을 선택한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었다』고 말해 민주화에대한 자신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李炳圭기자】

四人幇세력 과감히제거
中共首相 趙紫陽

【北京10日UPI=聯合】 중공수상 趙紫陽은 中共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9일 관료체제를 간소화하기위한 이른바『행정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4人幇』 추종세력을 과감히 제거할방침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와함께 北京방송은 모든 부패관리들에대해 오는5월1일까지 당국에 자수하지않을경우 新刑法의 가중처벌규정에따라 사형을비롯한 무거운 처벌을받게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상 趙紫陽은 이날발표된 한 연설을통해 전문직업관료들은 앞으로 정부의 요직을 맡게될것이나 4人幇추종자들과 최근 수년동안에 정치·경제적으로 법령과 제반규정을 위반한자들은 『단한사람도』 승진되지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中共의 부패상… 中共의 人民日報의 한 만화. 어느자동차 재벌의 몰락이라고쓴 이기사와 만화는 관리들에게 뇌물을주어 1천3백대의 자동차를편취한 사기한들의 죄상을 낱낱이 폭로하고있다. 이사건에는 공산당원78명이 관련돼있다. 【타임誌】

◇모델이된미스·프랑스 82年度 미스·프랑스에 선발된 學生인 사빈느·벨르바르孃이 지난달 모델로 새出發했다고。【키스톤=聯合】

海外토픽

水上步行 天國行
★中共紙 狂信행위 개탄

중공에서는 최근 광신자들이 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물위를 걸어가려고 한다든가 단식을 하다가 죽는사례가 많다고 중공의 靑年報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四川省에사는 소녀 4명이 물위를 걸어가면 영생한다는『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학교근처의 저수지에서 물위를 걷는다고 하다가 익사했으며 한 젊은 여자는 단식이 천국으로가는 지름길이라는 확신을갖고 단식을 하다가 8일째 되던날 아사했다면서 미신에 현혹되기쉬운 대중들에게 무신론을 한층 주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京=AP】

美, 藥심장使用승인
★肝癌환자등 壽命2년延長

美행정부는 8일 체내에설치됨으로써 간암환자들의 수명을 2년여간 늘려 줄수있는 세계최초의 藥심장사용을 승인했다.

무게 1백79g에 길이 8·9㎝ 무게 2·5㎝로 아이스하키의 퍽의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이藥심장은 스테인리스·스틸과 티타늄및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진것으로 간암환자의 수명연장외에 정맥염환자및 기타 질병환자들의 혈액응고를 막아주는 작용도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AP】

3천권 장서 흡처
★美프린스턴大 대학원출신

美프린스턴大 대학원출신의 토머스·프리먼(25)이라는 청년이 대학도서관에서 3천권이상의 장서를 훔친 혐의로 지난8일 경찰에의해체포됐다.

프리먼은 70년대초부터 책을 훔쳐내기 시작했는데 그의 아파트는 값으로 쳐서 25만달러어치나 되는 이 도서관장서들로 가득차 마치 도서관을 방불케 했다. 【프린스턴(뉴저지州)9日UPI=聯合】

유네스코 事務總長 오는17일 訪韓

아마두·마타르·옴보유네스코(UN교육과학문화기구)사무총장(사진)이 李奎浩문교부장관의 초청으로 오는17일 방한한다.

유네스코사무총장의 방한은 지난50년 한국이 가입한이래 이번이 처음이며 옴보우사무총장은 4일간의 체한기간중 외무·문교장관등과만나 유네스코와 한국간의 공동관심사및 유네스코사업의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外信알리나

◆佛·中共산당 관계强化합의=중공과 프랑스共産黨은 일부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합의했다고 프랑스共産黨정치국원 막심·그레메츠가 9일 출국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특히중공이 프랑스共産黨首 조르지·마르셰의 北京방문을 초청한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北京=AP】

◆핀란드 對蘇友好계속追求=마우노·코이비스토 핀란드 대통령은 대통령취임후처음으로 9일 소련을 방문, 자신은 전임자들이 수립한 對蘇우호정책을 계속 추구해나갈것이라고 다짐했다. 【모스크바=遞】

◆回敎圈, 平和仲裁小委구성키로=회교국들은 9일 18개월째 계속되고있는 이란·이라크戰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중재小委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비브·차티회교회의기구(ICO)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제다=遞】

◆에이레議會, 호히黨首再選출=에이레의회는 9일 피안나·파일黨의 찰즈·호히당수를 수상으로 선출했다.

호히당수는 가레트·피츠제럴드수상과의 표대결에서 일부 무소속의원들의 지지를얻어 86대79로 승리, 작년6월 피츠제럴드수상이 이끄는 파인·게일黨과 노동당의 聯政에 정권을넘겨준뒤 8개월만에 재집권하게됐다. 【더블린=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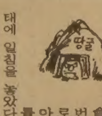
메아리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측 수석대표 스톨즈少將은 9일 판문점에서 열린 休戰委본회의에서 『북한은 이미 발견된 3개의 땅굴이외에 12개 이상의 땅굴을 北에서 南으로 파내려오고있다』고 폭로했다. 그동안 군사전문가들은 북괴가 휴전선에서 「數個의 땅굴」을 더파고 있을것이라는 추측을 해왔으나 이날 스톨즈少將의 폭로로 그 추측은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앞에 다치고 있는것 같다.

북괴는 72년부터 대남奇襲戰, 非正規戰을 수행하기 위해 「坑道作戰」을 펴며 땅굴을 파기시작하였다. 또 74년6월에 열린 그들의 노동당對南工作회의서도 「땅굴」의 군사적가치를 재평가하였다고 알려졌다. 즉 『땅굴工事가 완료되면 輕步兵旅團兵力 3만명이 땅굴을 통과、前方지역 국군을 포위하는 한편 後方을 차단하여 신속히 輕步兵이 서울로 침투함으로써 3일 이내에 전쟁을 끝낼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높이 2m、너비 2m의 「제3땅굴」만한 침투로가 확보된다면 이를 통하여 重武裝한 戰鬪師團兵力이 3~4열로 통과、1시간내에 이동·전개를 끝낼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제 4、5… 땅굴



최근 북한의 대남기습 공격능력에 대해 많은 해외 간행물이 큰 관심을 갖고 대대적인 논평기사들을 게재하였다. 뉴욕·타임즈紙는 유사시 북한은 비무장지대의 땅굴과 中共製 AN2機를 이용, 게릴라兵力을 대거 투입하여 南韓全域을 同時戰場化하는 기본 南侵計劃을 세워놓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또 홍콩의 파·이스턴·이코노미·리뷰誌는 지난주 북한이 『90秒이내에 한국방위력의 20%를 파괴할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스톨즈少將도 군사정전위 本會議에서 『인구순위가 세계40번째인 북한이 군대는 6번째로 큰규모의것을 갖고 있을뿐아니라 10만명이 넘는 특공대를 가졌다』면서 그 침략적 작태에 일침을 놓았다.

그러고보면 제4、제5땅굴이 조만간 또 드러날지도 모른다. 民族의 大和合을 외치는 우리로서 전율을 금할길이 없다. 孫子는 『兵은 詭道』라고 말하면서 상대의 虛를 노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것이 전술의 정체라고 경고하였다. 땅굴을 깔아 뭉갬과 동시에 우리의 虛를 보이지 않아야 할것이다.

새주인의 인사말씀

서울식품고객 여러분!
본 서울식품의 경영을 지난3월1일에 새로 인수받은 **이상수**입니다 그동안 서울식품을 애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새 주인으로써 인사드리오며 앞으로도 전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애용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서울식품은 신선한 생선과 싱싱한 채소를 갖추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고객이 왕**"이라는 정신으로 친절과 봉사로써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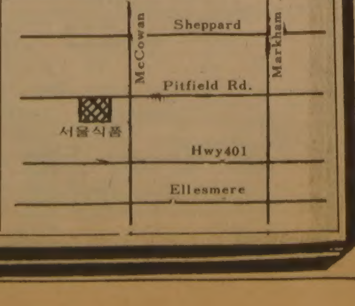
본 서울식품은 또한 수많은 **스페셜 품목**을 갖추고 있사오니 한번 왕림하시어 전보다 개선된 분위기에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식품을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께 인사로 따끈한**시루떡과 차**를 3월말까지 접대하고 있읍니다 꼭 한번 들려 주십시요

새주인 이 상 수 드림

서울식품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國有地에 許可없이 建物선 땅

緣故權者에 拂下키로

84년4월까지, 使用料면제

내달시행… 一時拂·5년分割로

시행령改正案

국유지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사는 사람들이 집터를 불하받을수 있게됐다. 오는 84년4월30일까지 정부로부터 사들이거나 정식사용계약을 맺으면 그간의 국유지사용료도물리지 않을뿐아니라 一時拂除나 불하대금 4~5년분납등 혜택도 받게된다. 재무부가마련, 10일 경제차관회의서 의결된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에따르면 81년4월30일 이전에 정식허가없이 국유지에 집을짓고살고있는 경우엔 이를 연고권자에게 불하키로하고 매각기준을 확정, 오는4월1일부터시행키로했다.

대상규모

서울·釜山·大邱는 60·5坪 이내 市지역 90·7坪 기타는 百21坪

정부가 불하할 대상규모는 건물이 서있는 대지로서 서울특별시와 釜山 大邱 仁川등 직할시지역은 2백평방미터(60·5평), 다른市지역은 3백평방미터(90·7평), 이밖의 지역은 4백평방미터(1백21평)이다. 따라서 건물이 서있지않는 땅은 이대상에서 제외된다. 매각대상토지를 오는 83년4월30일까지 불하받을때는 한꺼번에 돈을낼경우(一時拂)불하대금의 3할을 공제해주고, 대금의 분할납부를 원하면 5년까지 허용한다. 84년4월30일까지 불하받으면 일시불일때 대금의 2할공제, 4년분납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84년4월30일까지 불하를 받으면 그간 국유지를 사용한데 대한 사용료(판상금)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불하가격은 불하당시의 감정원감정가격을 기준하게된다.

돈이없어 불하를 빨리못할 경우에는 83년까지 정부와정식으로 토지사용계약을 맺으면 그간의 무허가사용료는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84년4월30일까지 불하도 받지않고, 83년4월30일까지 정식사용계약도 체결하지않을경우엔 그간의 사용료등도 강제징수하게된다. 그동안은 정식사용 계약을 맺지않은경우 사용료를 강제징수할수있는 법적규정이 없어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강제징수규정을 마련했기때문에 앞으로는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서 사용료를 강제징수하게 된다. 그런데 81년4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무단점유된 국유지는 총12만5천건에 1천5백37만5천평, 금액으로 7백3억원어치나 되며 이가운데 1백평이하 규모의것만도 9만4천건에 2백30만 8천평이나된다.

한편 국유지가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땅에 무허가집을짓고있는땅은 이번 매각기준에 해당되지않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기준을 정하게 되어있으나 대개는 이 기준에 적용될것으로 보인다.

◇국유지無斷占有현황 (81년4월末현재)

	件數	面積	金額
	千件	千坪	億원
50坪 未滿	80	1,390	412
100坪 未滿	14	918	75
500坪 未滿	23	4,543	118
500坪 以上	8	8,524	98
計	125	15,375	703

작년豫算흑자 千3백억원

81년도歲入·歲出결산 국가채무償還등 충당

일반회계서 8百16억·특별서 5百11억

지난해 정부는 세금등에 예산보다 더 거두어들인 반면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일반회계에서 8백16억원, 특별회계에서 5백11억원등 예산집행중 모두1천3백27억원의 순수한 흑자를냈다.

10일 재무부가 마감한 81년도 세입세출결산(主計簿마감)에 따르면 일반회계는세입8조1천7백44억원에 세출이 7조9천78억원으로 2천6백66억원의 歲計잉여금이 났는데 이가운데 1천8백50억원은 사업자체가 82년도로 넘겨졌기때문에 순수한 잉여금은 8백1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특별회계는 세입5조5천8백71억원에 세출 5조4천5백85억원으로 1천2백8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났으나 82년도로 사업이 넘겨진 예산분을뺀 순수잉여금은 5백11억원이다.

이처럼 예산집행이 흑자를 보인것은 일반회계의경우 세입에서 방위세가 특히 많이 걷혀 88억원의 수입이 늘어난데다 세출에서 7백36억원이나 절약해서 썼기때문이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은 예산보다 6천4백12억원이나 줄었지만 세출에서 6천9백40억원을 절약해서 흑자를 내게된것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순잉여금을 앞으로 국가채무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하거나 올해 세입예산에 넘길 계획이다.

密輸건수 줄고 규모는 大型化

金額 작년20%늘어

지난79년을 고비로 밀수건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금액은 오히려 늘어나는등 밀수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밀수적발건수는 3천9백35건으로 지난80년의 5천7백52건에 비해 31%가 줄어들었으나 금액은 1백39억2천9백만원으로 지난80년의 1백15억5천9백만원보다 20%가 늘어났다.

이처럼 밀수규모가 대형화되고있는것은 정상무역을 가장한 밀수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상무역을 가장한 밀수는 70건에 35억3천8백만원으로 지난80년의 49건 12억8천4백만원에 비해 건수는 42·9%가 늘어났으나 금액면에서는 무려 1백75·5%나 늘어났다.

주요生必品값 안정勢

商議조사 15개品 내리고 29개 保合勢

올들어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50개 주요생필품의 소비자가격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大韓商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2월말현재 쌀·쇠고기·달걀등 50개 주요생필품가운데 불과 6개품목만이 오름세를 나타냈을뿐 일부 공산품을 포함한 15개품목이 내리고 29개품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있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기간중 오른 품목은 배추가 상품한포기에 3백원에서 4백원으로 33·3%가 오른것을 비롯, 고등어(25%) ▲마른오징어 (6·7%) ▲마늘(15·4%) ▲사과(33·3%) 등 6개품목이다.

내린 품목은 곡물류가운데 콩이 白太상품 한말에 지난연말 7천원하던것이 6천5백원으로 7·1%가 하락한것을 비롯, ▲돼지고기 (6·7%) ▲생명태 (12·5%) ▲김 (11·1%) ▲무우 (33·3%) ▲콩나물 (25%) ▲파 (33·3%) ▲참깨 (6·2%) 등 15개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린 품목가운데는 설탕이 정백당3㎏들이 한부대에 3천2백원에서 2천9백원으로 9·3%나 내린것을 비롯, ▲식용유 (4%) ▲화학조미료 (6·3%) ▲러닝셔츠 (5·9%) ▲연성세제 (7·1%) ▲화생목 (2·7%) 등 주요공산품들이 상당수 포함돼있어 국내물가안정에 밝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한편 쌀·보리쌀·밀가루등 곡물류를 비롯, 쇠고기, 달걀, 분유, 소금, 간장, 라면, 소주, 우유등은 기간중 가격변동이없이 안정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對外信用度 높아 작년39위서 34위

美誌조사

【뉴욕10日AP=聯】 한국은정치·사회적 불안을 극복, 대외신용도가 지난해9월 세계39위에서 6개월만에 34위로 뛰어올랐으나 북한의 대외신용도는 세계최하위인 1백5위를 기록했다고 미국의 인스티튜셔널·인베스터誌가 10일 보도했다.

인스티튜셔널·인베스터誌는 1백여 국제적 은행들을 대상으로 3월 현재 세계1백5개국의 대외신용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81년 9월에 비해 전반적으로 각국의 대외신용도가 떨어졌으며 미국이 최고점인 97·5점, 한국이 지난해 3월보다 1·5점 높아진 56·9점, 북한이 최하점인 4·4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잡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우 중공을 비롯,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파푸아뉴기니 대만등 대부분 나라들이 신용도가 지난해 9월에 비해 떨어진반면 일본은 그 신용도가 다소 개선됐다고 말했다.

景氣회복조짐 희박

1월豫告지표 0·9 投資·소비위축·輸出둔화로

국내경기가 계속해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못하고있다. 투자와 생산및 소비활동도전반적으로 위축되고있어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1월중 경기예고지표는0·9。그전달과같은 수준에서 답보한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동향을보면 생산활동이 크게위축돼 제조업생산지수가 전년동기대비 (계절요인조정, 3개월이동평균) 8·0%증가에 그쳤다. 이것은 지난해5월이래 가장낮은 수준.

투자활동도 여전히 저조해 기계류수입이 0·4%, 건축허가면적이 2·8%증가에 그쳤고 특히 재고율지수의 경우 지난 8개월동안 계속감소되던 것이 1월에는3·1%증가로 돌아섰다。소비활동도 크게 위축돼 서울소매액지수가 2·1%증가로 지난해 4월이후가장 낮은증가율을 보였다. 전체적인 경기동향은 생산소비 투자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크게위축되고 있는가운데 통화금융측면만 약간 호전되고 있는양상을 보이고있다.

경제활동이 이처럼 위축되고있는것은 전체경기를 이끌어가는 수출이 둔화되고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1월중 3·3%증가에 머물러 최악의 불황시기였던 재작년 (80년) 중반이래 가장낮은 수준을보였고 LC(수출신용장)내도액증가율은 3·9%감소로 지난해 9월이래 연속 5개월째 감소현상을 보이고있다. 현재로서는 경기회복을 기대할만한 좋은조짐이 나타나지 않고있다.

한은관계자들은 ①올하반기의 세계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늘고 ②정부재정부문과 건설분야의 자금방출로소비가 회복될경우 완만한경기 회복세를 기대할수 있을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시험조사선 大皓號 (3천2백20톤·大皓원양소속)가 南氷洋 새우어장에서 크릴새우를잡아올리고있다. 大皓號는 부산출항 1백2일만에 귀국했다.

南氷洋 새우漁場 제2차操業

시험조사선 제707大皓號 환영식

南氷洋새우 시험조사선 제707大皓號 귀국환영식이10일 상오10시 釜山중앙부두에서 베풀어졌다.

이날 환영식에는 金鍾洙수산청장을 비롯, 수산관계기관장 원양업체대표등이 참석했다.

제707大皓號(大皓원양소속·3천2백20톤급)는 지난해 11월28일 제2차남빙양새우 어장시험 조업을위해 부산항을 출항, 32일간 남빙양크릴 새우어장에도착, 40일간 어장환경조사, 생물분포상황조사, 어획물 처리가공시험어획시험조사를 실시하면서 어획실적도 당초목표보다 19%초과한 1천4백29톤을 잡았다. 大皓號는 부산항을 출항한지 1백2일만인 지난 9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수산청은 1차시험 조업은 지난78년12월7일~79년3월7일까지 南北水産소속 南北號(5천5백톤급)에 의해 실시됐었다.

經濟短信

▲사우디통상사절단來韓=사우디 동부실업인13명으로 구성된 사우디통상사절단이 大韓商議초청으로 10일 내한했다.

▲자이레共經濟相來韓=중부아프리카 자이레공화국의 페이페이의 경제산업성장관이 徐錫俊상공장관초청으로 10일 來韓.

▲北歐·阿洲에무역사절=貿協은 오는 4~5월중 北歐·아프리카·일본지역에 민간무역사절을 각각 파견키로 했다.

▲浦鐵, 錫鍍原板 수출시작=포항제철은 그동안 국내시장에만 공급해오던 주석도금원판을 올들어 처음 칠레·싱가포르등지에 처녀 수출.

▲現代重電機, 국내최대용량 변압기제조=現代重電機(대표 池珠賢)는 三千浦火電용 3백45KV 6백30MVA주변압기제작에 성공.

88년서울올림픽 文化행사 「集團的흥과멋」의 祭典으로

藝術評論家協 6개부분 건의안 마련

서울예술평론가협의회(회장 朴容九)는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문화예술계의 적극적인 올림픽참가를 위한 기본건의안을 마련, 오는15일 관계당국에 제출하게 된다.

지난6,7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렸던 五輪참가방안試案에관한 세미나에는 문학·무용·미술·연극·영화·음악등 16개분야 평론가들이참가했는데 이날 논의된 내용을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건의안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기본방향=올림픽이 집단적 고대회합의 놀이 형식이었던 사실을 감안, 서울 올림픽은 집단적인 「흥과멋」의 제전으로 꾸미도록 한다. 옛 扶餘의 迎鼓, 무천의 祭儀형식등을 살려 관객들이참여하는 양동적인 전통놀이와 창조예술의 이원적 구성이 바람직하다.

이번 서울 올림픽예술행사는 지금까지 歐美문화의 식민지적 영향을 받아오던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수있는 계기가 되도록한다.

▲장기계획안=83년부터 신축되는 1천평이상의 건물에는 1백석이상의 극장공간부설을 의무화하여 관객수용능력의 절대부족을 해소시킨다. 또 83년부터 각지역단위로 공회당또는 문예회관 짓기운동을 전개한다. 국제펜클럽총회를 비롯한 30여 국제문화예술회의를 87년 한해동안 서울서 개최함으로써 많은 외국문화예술인들에게 88년올림픽에 대비해서 사전에 한국문화를 소개 한다.

이와함께 韓國美展을 위한 민속심포지엄을 연다.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위해 학자 평론가 언론인들이 참여한 民俗심포지엄을 83년부터개최하여 한국미를 정립시킨다.

몇년에 걸쳐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 서울올림픽붐을 조성하고 각지방 문화재를 지원 육성하여 올림픽 문화제전에 참여하도록 한다.

▲종합계획안=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은 세계의 개방도시가되므로 각지역마다 민담 설화를주제로한 조각소공원을 설치하고 올림픽문화제전의 참가작품제도를 마련한다. 88년 올림픽의 해를 맞아 공연되는 모든 국내작품은 미리 전문인사들로 조직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하고 통과된 작품에는 지원금과 올림픽마크및 올림픽문화제전 참가작품이라는 타이틀을 쓰도록한다.

또한 종합예술로서의 거리굿을 개최한다. 72년 뮌헨올림픽에서 문화행사로 가장큰 성과를 올린 「놀이의 거리」(Spiel Strassen)와 캐나다 몬트리올올림픽의「자유형식쇼」(Free form Show)에 대응하는 우리고유의 풍년제, 당산제등을 현대화하여 종합운동장과 올림픽촌일대를 축제공간으로 확대시킨다.

▲개회식대축전=88올림픽의 개회식은 흥겨움과 평화스러움 자유스러움을 조성하기위해 종합운동장 스타디엄위로 굿놀이의 엑스타시로 빠져들도록 연출한다. 남성적이고 용감한 차전놀이와 탈춤을주축으로 하여 관객과함께 흥겨운 신명풀이를 십분발휘시킨다. 인간의 규격화와 전체주의 국가적인상을 주어온 카드섹션을 폐지하는대신 탈춤의상의 강력한 색채감으로 컬러TV시대에 부응토록 한다. 탈춤이 끝난뒤 많은 관객석에 수없이 던져주는 행사를 한다.

부문별 6개분야 건의행사는 다음과 같다.

◇각분야 평론가들이 88올림픽을 전후에 한국문화예술을 적극 소개하기위해 청사진을 마련, 문화인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사진은 이기간동안 소개될 전통민속)

▲미술=古미술과 현대미술로 나누어 한국미술5천년의 흐름전, 한국佛畵 佛具展, 民畵 民藝展, 新安앞바다인양도자기전, 의상장신구전, 세계최고인쇄문화및 古활자전, 인간문화재工房展, 근대한국미술전람회, 현대한국미술의 양상전, 사진전, 가두벽화조각전, 우표 화폐 동전전람회, 「올림픽주제의 어린이벽화경연, 한국스포츠역사전람회, 한국올림픽참가역사사진전, 그리고 국제문화올림픽친선을 위한 국제미술전, 국제민속전, 국제조각심포지엄, 국제판화전, 세계스포츠우표전, 국제어린이회화전, 국제사진전, 국제청년건축가전개최등.

▲문학=고대한국예술의원형대본을 복원, 新羅 處容歌등을 공연하고 판소리 입체낭독, 민족교향시곡인 「가시리」「황진이」 정철의 사미인곡등 한국역대 대표시선을 낭독한다. 한국고대소설선집을 문고판으로 내고 동시에 美·獨·佛·日·스페인어로 번역한다. 한국관계 외국서적 전시회를 갖고 한국문학관을 건립한다.

▲연극=세계청소년연극제 한국연극전시회및 자료박물관, 창작뮤지컬, 창극, 전통예술공연, 세계가면극페스티벌개최.

▲영화=역대올림픽기록영화페스티벌, 다큐멘터리 서울올림픽과 올림픽까지의 경과, 우수한국 영화회고주간, 서울올림픽기록영화제작, 다큐멘터리 한국스포츠제작, 한국영화자료관건립, 한국영화필름 라이브러리설치, 올림픽문화제작을위한 인재양성과 기재의준비.

▲음악·무용=재외교포에 의해 美로스앤젤레스교포국악단이나 소련 南部타시켄트에 있는 교포발레단의 서울공연 교섭. 86년 아시아 각국의 전통음악·현대음악을 망라하는 汎음악제와 동구권및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민속예술단을 초청, 세계민속무용제를 연다. 음악은 88년 멕시코의 예처럼 1년을 통틀어 예술제기간으로 정하고 9월과 10월 전통음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행사를편다. 【崔成子기자】

美業者싸움에 한국政府 당혹

―美새크라멘토紙 쌀스캔들 報道

獨占權노려 賂物說 퍼뜨려 "우리가 더러우면 市場잃어"

미국 서부지역의 권위지 새크라멘토·유니온紙는 지난 8日字기사에서 쌀도입 스캔들을 「한국의 쌀시장을 독점하기위한 兩大양곡중개상의 알력에서 비롯됐다」고 밝히고있다. 다음은 그 기사의 要約내용. 【編輯者註】

4년전 朴東宣스캔들로 고발된바 있는 자를 포함한 강력한 두 미곡중개인의 싸움이 거대한 양의 잉여쌀을 갖고있는 이시점에서 加州米의 主市場인 한국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싸움은 뉴저지州의 미곡중개상이며 朴東宣을 그의 대리인으로 하여 여러해동안 한국에 대한 양곡판매를 독점해왔던 그로버·코넬의 편인 前샌프란시스코市長 조셉·알리오토와 세력을 한창 확장하고있는 커트·로카간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는 미국회의원이 개재돼있고 한국측에 뇌물이 제공됐다는 증거없는 주장으로 한국정부를 당혹시키고있다.

는 한 국무성관리는 『한국의 모든 고급관리가 명단에 올라있다。 아들은 격노해서濠州와아르헨티나에서 쌀을 구입하는등 購入先을 다변화시키고 있으며 만약 우리 (미국측)가 깨끗하지 않다면 미국은 한국시장을 잃게 될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1백13명의 미의회의원들은 한국의 고위당국자에게 미국 쌀판매를 둘러싼 부도덕행위에 관한 보고에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편지를보냈다. 편지에서 국회의원들은 이상스럽게도 한국측이 쌀구입에 비싼값을 지불했다고 불평하고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만약 근거없는 풍문이관계당사자의 명성을 해치게 된다면 미국과의 쌀거래를 위태롭게 할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코넬, 프레스노, 차풀, 및 로제빌레의원등은 한국측이 미곡구입때 2천2백만달러 (1백54억원)를초과지불했으며 그중 일부가 뇌물로 사용됐는지도 모른다고 강력한투로암시했다.

차풀의원은 이 싸움이 경쟁적인 두 미곡중개상의 싸움임을 알고 손을 뗐다.

5주전 알리오토는 코넬社의 변호인으로서 만약 코넬社가 미곡입찰에서 제외된다면 獨占禁止法위반으로 제소할것이라고 한국을 위협했고 최근에는 駐美한국대사를 법원에 소환코자 시도하기도했다.

미국무성은 의회에 대한 최근의 서한에서 「알리오토가 퍼미社 (코넬경쟁사)에 대해 주장하고있는 혐의를 정당화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밝혔고 국무성의 對국회담당관인 포웰·무어씨는『코넬측은 그들의 비난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코넬社는 지난 77년 대리인 朴東宣을 불법적으로 이용한것과 朴에 대한 수수료 1백50만달러를 숨긴 혐의로 고발됐으나, 朴이 이사실을 부인함으로써 결국 訴가 취하되었었다.

IPI 한국委員會 韓鍾愚씨 理事선출

국제新聞人協會 (IPI) 한국위원회는 10일 코리아·헤럴드紙의 韓鍾愚사장을 國內委 理事로 추가 선출하는 한편 사무국장에 玄昭煥연합통신 편집부국장을선임했다.

國際大 金基衡학장 文敎部서 취임承認

문교부는 10일 국제대학장에 金基衡씨 (전과기처장관)를 취임승인했다.

한국 데이타通信 社長에 李龍兌씨

한국데이타통신주식회사는 10일하오 창립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李龍兌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이사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對韓經協案 마련 日外相 訪美전에

【東京9日=聯】 일본정부는 사꾸라우찌·요시오 (櫻內義雄) 외상이 미국을 방문하기위해 출발하는 오는 20일까지는 對韓경제협력문제에 대한 일본측 案을 마련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표면적으로 『이번 사꾸라우찌 외상의 訪美에 따른 美日접촉과정에서 韓日문제가 거론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 對韓經協문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노력을 설명하기 위해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이소식통은 미국이 83년도국방보고 가운데 일본에대해 東北아시아및 주변지역에서의 군사적 경제적 기여를, 특히 한국에대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점과관련, 사꾸라우찌외상 訪美중 韓日문제가 거론될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남 요담에서는 또 오는 20일로 예정된 사꾸라우찌외상의 訪美와 관련한 문제와 經協의 타결방안에 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요담에는 韓國側에서 崔東鎭亞洲局長이, 日本측에서 아라끼·기요시(荒木喜代志) 공보관이 각각 배석했다.

한국일보 詩壇

이 평범한 풍경이여

金芝鄕

겨울 뚱지를 풀고
창문을 열어보았다
눈이 닿는곳 마다
눈이 생각하는 만큼의
풍경들이
멀리 가까이 깜박이고 있다
나와 눈이 마주친 풍경은
제편에서 미리 미안해한다
점점 크게 뜨고 따라가는 나의 눈에
머뭇머뭇 안개를 따라보내면서
풍경이 하나 둘
안개 뒤로 몸을 빼돌린다
우우우 저희끼리 모이는
잎진 나뭇가지,
가령
저 안개를 벗어나와
사과나무는 사과 아닌 열두를
매화나무엔 매화 아닌 진달래를 열우는
일이라도 해낸다면
나는 하루 열번쯤
창문에 붙어서서 신명이 날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독하게 정상인
구부린 허리, 얇팍한 안개뿐
갈곳도 없는지
내 눈에만 들어오는 안개
뒤에서 미안해하는
이 평범한 풍경이여。

김인규회계사무소 개업안내

지난 7년 동안 해오던 회계업무를 더욱 충실히하기 위하여 아래장소에 1월1일부터 사무소를 개업하였읍니다.
Computer, Xerox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사무실로 아시고 배전의 애호와 편달을 바랍니다.

ACCOUNTING OFF. I. K KIM, RIA
501 Yonge St. Suite 207(Yonge & College)
Toronto, Ont.
☎ : 960-5736(B) 844-0178(R)

약력 : 1964년 서울상대졸업
1975년 RCA RIA
1981년까지 12년간 카나다제조업체에
Accountant, Controller로 근무

1982년 1월 일

공인회계사
김인규 배

東国大学校同門会 第五次 定期総会

발전일로에 있는 東大동문회 제5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여러분 부디 부부동반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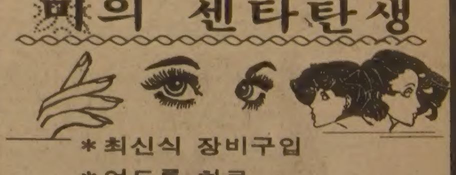
일 시 : 3월27일(토) 오후6시
장 소 : 한 인 회 관
20 MOBILE DR. TORONTO
TEL. :755-9288
연락처 : 844-8052 MR. 정
282-5632 MR. 조

☆DINNER와 DANCE MUSIC PROGRAM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재 카나다 동국대학교
동문회장 정규영

Annie's Beauty Care Center
(Hair Wizards)

♥여성의 희소식♥
미의 센타탄생



* 최신식 장비구입
* 여드름 치료
* 잔주름 제거
* 노화방지
* 살결을 탄력있고 부드럽게
* 매니큐-패티큐

● 불란서 최고급 화장품 사용하여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
● 털이많아 고민하시는분
● 바른 화장법 지도

6093 Yonge St. (영×휜치)
Yonge 센타 플라자 내
☎ : 223-7884~5 Mrs. 리

나의 이력서

金蘇東 ⑨

〈題字·金蘇東〉

映畵편력

高普시절엔 새영화 안보고 못견뎌
단순한취미 이상으로 끈질긴 執念

고보시대의 내 영화행각은 일반선을 훨씬 넘어선 경지에서 탐구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 당시의 프로그램을 빼놓지않고 스크랩했다. 이 보물들은 6·25때 분실됐다. 서울로 올라와 2년이 흘러간무렵 종로통 야시장을 구경나갔다. 좁은거리 동편 인도에는 찬란한 전등을 켜놓고 각종물품들을 매매하는 포장전포의 야시장이 섰었다.

물건을 산다는 의미보다는 사람구경을 나간다는편이 훨씬 알맞은 표현일지도 모른다. 후텁지근한 여름밤에는 하숙집을 뛰쳐나와서 야시장으로 나가기가 일쑤였다. 숙명, 진명, 근화등등 흰저고리 검정치마 혹은 자주치마의 말같은 여학생들이 삼삼오오 떼를지어서 몰려다녔다.

어느날 관철동 우미관앞에 왔을때 金秉勳(납북)과 나는 간판그림에 매혹된 나머지 10전을내고 극장안으로 들어갔다. 롬빅스의 서부극이 상영되고 있었다. 아슬아슬한 대목에서 다음주로 계속되는 4권짜리 연속극 「호랑이의 발톱」(虎의爪)을 보고 하숙으로 돌아왔다. 당시 조선극장에서 상영중인 론차니의 「오페라의 괴인」을 보고 더욱 영화의 오묘한 표현력에 신비스러운 매력을 느꼈다. 우미관 연속극은 물론 빼놓지않고봤다.

이러한 나의 영화역정은 제일고보를 졸업할때까지 남몰래 지속된 셈이다. 취미나 기호라기보다는 끈질긴 집념같은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뭔가 눈에 보이지않는 매혹 그것이 바로 내영화예술에의 묵시록이 된것이다. 3학년때 찰리·채플린의 「黃金狂時代」를 보고 희극속에있는 비극을 발견했고 웃음속에서 인간의 해학을 봤다. 활극만이 전부가 아닌 인간의 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골드러시」는 그래서 길게 기억에 남는영화다.

킹뷔다의 「빅·퍼레이드」, 무르나우의 「최후의 인」, 프리츠·랑의 「지그프리드」, 프랑크·보자기의 「제7천국」, 반·다이크의 「남해의백연」, 브라운의 「앤너·크리스티나」등 1930년대까지의 주옥같은 무성기영화들은 영화해설자들의 능숙한 설명에 의하여 한국관중들에게 소개되었다. 조선극장의 김영환과 김조성, 단성사의 김덕경과 성동호, 우미관의 서상호와 윤화가 이시대의 왕자들이다.

여름방학에 고향에 내려가면 서울, 대구, 청주, 부산, 이리등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일제히 돌아온다. 달밤이면 왕릉산 잔디밭에모여 활동사진얘기로 꽃을 피웠다.

D·W·그리피드의작품들을자정이넘도록 얘기해주곤했다. 채 끝나지못한 부분은 다음날밤으로 계속되었다. 형과 아우 그리고 친구들은 연속극처럼 그다음을 기다렸다. 저녁을 먹고 조금늦게 뒷동산에올라가면 이야기청중들은 지루하게나를 기다리고 있다. 참외를 가져와 깎으면서 다음이야기를 재촉했다.

그리피드의 작품 「세계의 심」(世界의 心)이라는 영화를 나대로 각색해 신나게 이야기했고 한쪽은신나게 들었다. 이 영화는 사실상 미국을 세계1차대전에 참전케 했다는 점을 부언해둔다.

이영화를 본 미국의 열혈 청년들은 스스로 군인이 되어 참전할것을 자원했다. 이 영화가 개봉된 직후 참전을 반대했던 사회여론이 참전쪽으로 기울어졌다. 드디어 국회가 열리고 정부는 1차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하기를 결의했다. 이 영화는 그러한 일화를 지닌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다. 그리피드의 「세계의 심」은 1929년가을 조선극장에서 개봉된것으로 생각된다.

이 작품은 소년시절의 내 가슴속에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과 그뒤에 숨은 인간사회의 비극을 뼈저리게 전달해준 영화다. 프랑스의 어느 쓸쓸한 한촌, 사랑하는 남편을 전선으로 내보낸 두 여인의 슬픈얘기다. 기아와 혹사와 피로에 지쳐버린 그들은 독일군 점령하에서 폭정과 오만과 노예와 같은학대를 달게 받아가면서열등동물처럼살아갔다.

못견디게 고달프고 슬픈 나날이었으나 그들은 일루의 희망을 걸고 승리의 날을 희미하게나마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생명의 연장을 끈질기게 지속해온 나머지 생에대한 본능과 집념은 끝내 그들을 본의아닌 매춘부로 전락케한다. 보는이로 하여금 울분과 적개심과 복수심을 자아내게 했다. 이 영화가 호소한 반전사상과 전쟁의 비극성은 미국을 참전으로 이끌어갔고 드디어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다. 평화와 자유가 다시·구라파대륙에 찾아온 것이다.

◇高普시절 한참 영화관순례를 할때 보았던 그리피트作 「세계의 心」의 한장면。

女性살롱 〈木曜인터뷰〉

어릴때 「소질」 빨리 찾아줘야
전혜금씨가 말하는 藝能교육
어머니꿈 子女에 강요는 잘못
콩쿠르성행·流行물결 편승은 成長활동 되려 그르쳐
父母는 적성찾아 進路유도役으로 끝나야

어린이 早期교육과 藝能교육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가고있다. 내아이의 소질은 무엇이며, 그 소질을 빨리 찾아내어 어떻게 해야할까─이것이 요즘 父母들의 최대관심사이다. 작곡가 금수현씨의 아내이며, 지휘자 금난새씨등 예술가들을 키운 어머니이고, 그자신 20여년간 유아교육을 담당해온 전혜금씨(60·금잔디유치원장)는 10일 서울YWCA 주부강좌에서 「자녀의 예술성 어떻게 도와줄까」란 제목으로 강연하여 많은 어머니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를 만나 藝能 早期교육에 대한 대화를 나눠본다.

『사람은 누구나 어릴때꿈을 꾸지요. 나는 자라서 무엇이 되겠다, 그리고 어떤 남편을 맞겠다, 이것은 모든 소녀들이 꾸는 꿈입니다. 꿈을 이루지못한 엄마들은 子女를 통해서 꿈을 이루려는 생각을 품게됩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곧 그 잘못을 깨닫게 되었지요』

全혜금씨는 어린시절 자신의 꿈은 「음악가」가 되는것이었고 또 「외교관의 아내」가 되는것이었다고 말한다. 그의 父母는 모두 음악을 좋아했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후 5살때 새엄마로 들어온 「末峰어머니」(소설가 金末峰씨)도 열렬한 음악팬이었다. 「末峰어머니」는 늘 피아노를 치며 노래부르기를즐겼고, 아버지는 어린자녀들에게 축음기를 틀어주며 아름다운 고전음악을 들려주곤했다. 釜山「新女高」에서 피아노를 공부하며 음악가가 되려는 꿈을 키우던 全혜금씨는 아버지의별세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채 그당시 女高음악교사이던 금수현씨와 결혼했다고한다.

『아이들을 낳자 모두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첫아들 나라(10여년전 사망)는 「외교관의 아내」가 되고싶었던 내꿈을 살려 외교관을 만들고 싶었지요. 항상 1등을 했기 때문에 京畿고등학교에 보냈고 그애도 엄마의 요구대로 外交官이 될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大學입시에서 1차지망에 실패하자 그는 주저하지않고 音大를 택하더니 자신은 외교관보다 음악가가 더 되고싶었다고 고백하는거예요. 나는 그때 크게 뉘우쳤지요. 그래서 다음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엄마의 요구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공부 잘해서 외교관이 되라』고 長男을 몰아갔던 그는 다음 子女들에게는 「학교성적」을 챙기는대신 「소질」을 찾아주는일에 신경을썼다고 말한다.

엄마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긴 했지만 「음악가가 되라」고 말한일은 없었다. 외딸 내리(화학박사·단국대교수)가 국민학교3학년때 「피아노를 안치겠다」고 말했을때 두번다시 권한일이 없었다.

『그러나 후에 딸에게서원망을 들었지요. 어린나이에 일시적으로 싫다고말했는데 왜 두번다시 권하지않은것은 엄마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때 「아차!」했지요. 예능교육은 조기교육이 필요하기때문에 어느정도 강제가 필요하다고봐요. 하기싫어한다고해서당장에 그만두게한다면 끝까지 계속할수있는 아이란하나도 없지요. 하기싫어하더라도 몇번 정도는 계속시키려는 노력을 해보며 아이가 정말 싫어하는지를 알아봐야 해요. 물론 소질이있든없든 덮어놓고 「엄마의 꿈」을 강요하려는 엄마들을 두둔하는것은 아닙니다』

國樂지휘자인 금난새씨(34), 조각가 금누리씨(30·국민대교수), 빈에서 작곡과 지휘를 공부하는 금노상씨(28)등 세아들을 예술가로 키워낸 그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그 흔한 콩쿠르에서 상장하나 타오는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 자기분야에서 착실하게 성장하고있다』면서 『상장이나 트로피타기 경쟁』을 벌이는 오늘날의 예능교육풍조를 안타까와한다.

자녀들의 예능교육진도를 놓고 엄마들이 경쟁을벌이고, 예능교사들이 엄마들의 욕심에 발을 맞추고, 허영을 채워주려는 각종콩쿠르가 성행하고있는 오늘의 풍조는 『예술가를 키워내는데 방해가 될뿐』이라는것이 그의 의견이다.

유치원에서 20여년간 어린이들을 가르쳐온 그는 『좋은점을 하나라도 갖지 않은 어린이는 없다』고 말하고 『아홉가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한가지 좋은점을 발견해서 키워주면 그 아이의 교육은 성공시킬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많은 엄마들은 그 아이의 좋은점을 찾아내려 하지않고, 「流行하는 藝能교육」을 좇아 무턱대고 가르치려 한다고 全여사는 안타까와 한다.

『우리 세아들들은 모두 서울藝高를 다녔는데 나는 학교에 불려다니기 바빴지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하지않아 「과목낙제」가 심심찮게 나왔거든요』

「과목낙제」로 엄마를 불려다니게하던 아들들은 일찌기 자신의소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북돋워주는 교육을받았기때문에 오늘날 예술가로 성장할수있었다. 全여사는 그밖에 또한가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心性」을 길러주는 가정교육을 강조한다.

『엄마의 욕심과 강훈으로 「10代天才」는 만들수 있겠지만 그후의성장은 스스로의 힘에 달린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행복한心性없이 예술가가될수는없는것이고 이런心性은 어릴때부터의 가정환경에서 형성되는것이지요. 음악을 좋아하는 엄마, 詩를 사랑하는 아버지, 이런분위기야말로 예술가를 만드는 기본요건이라고 봅니다』

全여사는 子女를 예술가로 키우고싶은 父母라면 예술을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속에서 子女의 소질이 어떤쪽을 향하는지 지켜봐야 할것이라고말한다. 【張明秀기자】

◇4남매를 음악가, 미술가, 화학자로 키운 전혜금씨。 『아이들이 「과목낙제」를 해도 야단친적이 없어요』라고 말한다.

文學話題

西浦 金萬重이 쓴 「어머니 一代記」
檀國大 金鍾旭연구원 발굴
「尹氏行狀」표제, 귀양중한글로 집필
血統·성품·생활태도등 소상히 담아

걸작 古代小說로 꼽히고 있는 「九雲夢」「謝氏南征記」의 작가 西浦 金萬重(1637년~1692년)이 그의 어머니의 모습에 대해 쓴 글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있다.

金萬重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성이 극진해서 「九雲夢」「謝氏南征記」등의 漢文소설도 실제로는 외로운 어머니에게만 읽히기 위해 쓴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이 글은 「尹氏行狀(윤씨행장)」이라는 표제가 붙어있고 순 한글로 쓰여 있다. 「尹氏行狀」은 金萬重의 작품연보나 傳記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은 미발표의 글로 檀國大 金鍾旭씨(문학연구박물관연구원)가 43년에 발간된 잡지 「三千里」지(8월호)에 소개된것을 찾아냈다.

이 글 속에는 金萬重이 지극한 사랑으로 공경했던 어머니 尹씨 부인의 성품과 생활 태도가 세세하게 묘사돼 있어 훌륭한 선비 아들로부터 존경받았던 한 옛 여인의 모습을 볼수 있게 한다.

그는 명문거족인 光山金氏로, 조선조 仁祖 15년 청나라 군사들이 침략해서 江華가 함락당할때 순절(殉節)한 金忠貞公의 유복자로 태어났다. 어머니 尹씨는 漢學과 經書에 뛰어난 여인으로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萬重에게 직접 글을가르쳤다. 「윤씨행장」은 『불초고애남(不肖孤哀男) 萬重은 읍혈(泣血·피눈물을 흘리며)하고 삼가기록하노라』로 시작해서, 어머니 尹씨의가문과 혈통을기록하고 어머니로부터漢學등 글을배운이야기, 어머니의 가난하지만 검소하고 깨끗했던 생활태도, 자신이 南海로 귀양을 가게되어 어머니의 임종도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홀로 고독하게 떠나보낸 이야기등을 담고 있다.

金萬重은 대제학까지 지냈으나, 肅宗15년 숙종이 후궁張씨(장희빈)에게 빠져 政事를 그르친것에 대해 직간(直諫)한 것이 화(禍)를 입고 멀리 南海로 귀양을 떠나 南海 외로운 땅에서 타계했다. 「윤씨행장」은 남해귀양살이중에 쓴 것으로, 귀양살이중에 쓴 것이다.

「윤씨행장」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는 金忠貞公에게 시집을 갔으나 亂中에 일찍 남편을 잃고 그후부터는 평생토록 素服을 입고 아름다운 옷은 몸에 걸치지 않았다. 본디부터 서적을 즐겨 읽어 늙도록 책읽기를 그치지 않아 글솜씨가 빼어났다.

아들 만중이 귀양을 갈때도 윤씨부인은 섬마까지 나와 『몸을 스스로 사랑하고, 나를 생각지 말라』고 타이르고, 『학업을 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윤씨부인은 己巳年2월에 73세로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 金萬重은 「윤씨행장」 마지막 귀절에서 『어머니의 덕을 기록하는 글에 감히 漢字를 꾸밀수가 없어 한글로 적는다』고 적어 한글로 적는 간곡한 情을 표현했다. 이 글은 2백자 원고지로 옮겨 약72매 분량으로 전개돼 있다. 【高[illegible]기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57〉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⑭

점장이한테서 시원한 소리 못들으면 또 딴 점장이를 찾아가면 되지만 선생님한테 기대한 소리를못들으면 아무리 부아가 나도 선생님을 또 찾게 마련이었다.

학부모와 학원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요점은 하나였다. 재수생이기때문이라는 거였다. 학부모는 기껏 재수까지 시켜가지고 낮은 학교에 보낼수는 없다고 우기고 학원측에선 재수생이기때문에 안전위주로 보내야한다고 맞섰다.

학부모는 자기자식이 어느학교에다니느냐에 명예를 걸었고 학원에선 그해의 입학률이 몇%가되느냐에 명예를 걸었다.

학원측으로 볼때 그해의입학률은 곧 그 다음해의 영업의 신장률과 직결되는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깊이 관여하려 들었다.

한쪽은 개인의 체면을걸고 한쪽은 학원의 명예를 걸고 열렬히 대결하느라 정작당사자인 입시생들은 영문을모르는채 그 어느때보다도 자유롭게 방치된 상태였다.

말이 재수생이지 일류중학에 가기위한 재수생이니 코흘리개나 겨우면한 개구장이들이었다. 마지막 총정리는 말뿐이고 학부모상대하기에 정신없이 바쁘고 간교해진 선생님과 자식 사랑이 마침내 광기처럼 고양된 학부모들에의해 되레 잠시 잊혀진 아이들은 그 영문모를 자유를 요령껏 즐기고 있었다.

목이에게 이모든것이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그녀가 체험해보지못한 거여서도 신기했지만 그녀가 이러 저러하려니 공상한 부모자식 사이하고는 판이해서 더욱 신기했다.

옷잘입고, 영양좋고, 화장이짙은 엄마들이 한때 나타나서, 하소연하고 눈물 짓고 애걸하다 돌변해서 기고만장 수다떨다 가고나면 목이는 묘한 호기심으로 그엄마들의 아이를 찾아내서 이리저리뜯어보고 말도 시켜보곤 했지만 아무 것도 알아낼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엄마와는 얼토당토 않게 불쌍하고 꺼칠해보였다. 그렇다고 그게 목이가 알아내고자 한건 아니었다. 실은 자기가 알아내고 싶은게 뭔가조차 분명한건 아니었다.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닮았나? 부모와 자식을 맺어주고있는 혈연의 끈이 사랑이라는 걸까? 부모가 자식에 의해, 자식이 부모에 의해 어느만큼 더 행복해질수있는 걸까? 대강 이런 것들이 알고싶었지만 그녀가 반짐작이라도 할수 있는 건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야말로 무서운 악운(惡運)일지도 모른다는 것 하나뿐이었다.

고아원 친구들이 놀러오는 빈도도 잦아졌다. 취직이라고해서 흩어진지 반년이 가까운 사이에 거의가 당초의 직장을 바꾸고 있었다. 직장을 옮기기위한 공백기간엔 으레 목이한테 들러서 하소연을 하기도하고 옮길필요가없는 목이의 직장을 부러워하기도했다.

혼자 있을때는 그다지도 않다가도 고아원 친구가 하나만 같이있어도 목이는 극성스러운 엄마들한테 격렬한적의를 느꼈다. 친구가 그만둔 직장 욕을하면 목이는 대신 그 학원아이들 엄마 욕을 들입다 해댔다.

『저런 극성스러운 엄마들을 보면 우리가 고아인 것도 타고난 복인줄 알아야 겠더라』

그리고 나면 마치 불이 나서 아우성치는 집 구경을 하면서 「우린 불탈 집이 없으니 복도 많지」하고 자축(自祝)한 거지떼같은 쓸쓸한 허탈감에 빠졌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4局 總譜239手完 黑2집반勝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鄭 壽 鉉〈2勝3敗〉
黑〈7段〉徐 奉 洙〈3勝1敗〉

徐7단은 各棋戰 본선리그때 한판은 꼭 고전을 치른다. 名人戰만해도 작년도에 張秀英6단에게, 그리고 금년에는 鄭4단에게 애를 단단히 먹었다. 하기야 결국은 무서운 저력을 발휘하여 각각 역전승을 한것은 다행이겠지만 觀戰子는 그원인을 따지기전에 杞憂의말을 한마디 던지고싶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때에도 평생의 힘을 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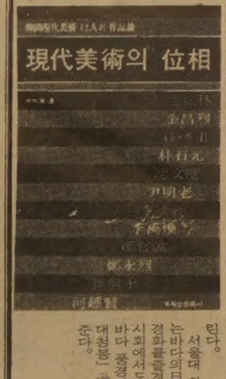
그것은 그렇고 徐7단은 張秀英6단과 함께 3승1패, 현재 3승무패의 姜勳4단의 뒤를 바짝쫓게 되었다.

한편 鄭4단은 이미 3패를 기록하여 시드組 탈락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었다. 3패자가 많을경우라도 전년도 순위관계가 크게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바둑은 승패를 떠나서 鄭4단으로선 하나의 力作임이 분명하다. 정상급인 徐7단을 끝까지 괴롭힌점, 비록 끝내기에서 아까운失機는 했을망정 그것이 커다란 흠으로 보이지 않는것이다.

徐7段 끈기의 逆轉勝

시초 徐7단이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않는 세력포석을 편일은 희한했지만 鄭4단은 철저한 실리작전으로 맞서, 이른바 「4귀생 통어복」으로 계속 우위를 지켰은 국면이었다. 원인은 白36이하의 침략군을 공격하는데있어 黑41이 유약했던 때문이다. 黑41은 당연히 50자리를 강하게 젖혀야했던 것이다.

白이 기회를 잃은 것은 86으로 103자리를 끊지못한 수와 끝내기에서 180으로, 218자리에 젖히지 못한점들이다. 이결정타를 놓친때문에 무서운 계가바둑이되었다가 결국 徐7단의 노련하고 끈질긴수법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一凡】



중견작가 12명비평 나와
現代美術位相

중견미술작가 12인의 작품을 논한 책 「現代美術의 位相」(申恒燮著)이 화성문화사에서 출판돼 나왔다.

이 책은 金丘林, 金昌烈, 朴栖甫, 朴石元, 沈文燮, 尹明老, 李承祚, 李禹煥, 鄭官謨, 鄭永烈, 崔明永, 河鍾賢씨등 비구상계열화가와 조각가들의 작품을 컬러및 흑백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작품의 성격을 논하고있다.

이 작가들은 14일까지 明東화랑에서 출판기념전시회를 열고있다.

린다.

서울대 회화과출신인 한메는 바다의日出광경을비롯한풍경화를즐겨그려왔는데이번전시회에서도 「부활」「동해」등 바다풍경과 「한라산」「설악대청봉」등 산수화를 보여준다.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라이저와 방금 절교했어요" "그애가 숙이고 돌아올때까지 기다리기로했어요" "만약 그애가 숙이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가 그래야죠"

✡봄철스페샬대매출✡

ZENITH

REG. $1495 SPEC. $1095

비데오는 역시 제니스
(BETA), J.V.C(VHS)
입니다

*14DAYS PROGRAM
(14일간 녹음가능)
*HEAD 4개
*REMOTE CONTROL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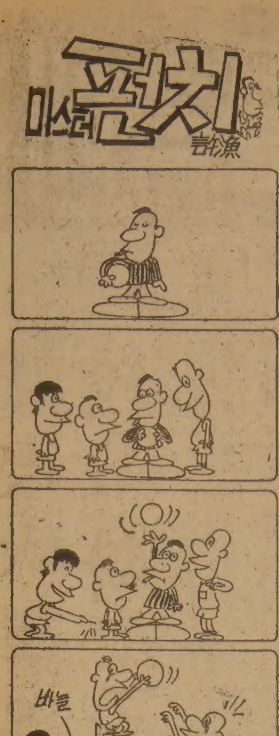
JVC Shuttle Search

REG. $1599 SPEC. $1195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아카데미 T.V.&STEREO CO.



"虛僞보도한「文春」제소
金龍鉉에게 오린지 보낸건 事實
崔씨의빚 1萬5千弗 탕감해줬다"

가네히라 記者회견

―오린지주스를 차입한 일이있는가.

▲崔承哲매니저의 요청에 따라 사준것으로 기억한다.

―오린지주스에 독물을 넣었는가.

▲그런야비한 짓을해서 세계챔피언을 5명이나 낼수있는가.

―도까시끼(渡嘉敷勝男)의상대편인 金龍鉉선수의 방에 協榮팀이 방을잡은일이 있는가.

▲상대편선수의 편의를 봐주기위해 방을잡은것은 사실이다.

―이번 폭로사건은 協榮도장에서 그만둔사람이 제보했다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 金龍鉉선수의 매니저인 崔承哲씨가 제보한것으로본다. 崔씨는 金선수의체중을 계약보다 1파운드 더봐달라고 요청했으나 내가 거절하는바람에 불만이 많았다.

崔씨는 시합날아침부터 술을마시고 소란을 피웠다. 崔매니저가 나에게 1만5천달러의 빚이 있었으나 이를탕감해주었고 崔씨가 용돈이없어 10만엔도 주었다.

―돈을 준것은 이상하지않은가.

▲같은 동업자로서 귀국할때 선물이라도 사가라는뜻이었다.

―金龍鉉선수의 방인 408호실에 들른일이 있는가.

▲들른기억이 없고 崔매니저와 만난일은있다.

―만일 독물 공작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복싱계에서 모든직책을 떠나 맨주먹으로 주간文春과 15라운드를 뛸작정이다.

美國야구

타임誌서 특집보도 스프링캠프등 자세히

◆…美國의 시사주간지 타임誌는 3월15일자 스포츠난에서「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야구열풍」이라는표제로 27일개막될 한국프로야구를 3장의 사진과 함께 소개. 스펜서·데이비슨이 쓴 이기사는 한국식 발음「야구」라는 단어의풀이로부터 간단한 역사와 현황, 한국프로팀들의동계 트레이닝 현장을설명하고 있다. 이기사는 한국프로야구 선수중 최고대우를받는 金奉淵(29·해태·타이거스)의 경우 월봉2천8백달러로 월임금이 평균1백달러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에 비하면 대단히 많은 것이라고 소개.

◆…오는 27일의 시즌오픈을 앞두고 전력강화에 안간힘을 쓰고있는 프로구단들이 서울에서 연습장을 빌지못해 애태우고 있다.

1개월간의 江陵전지훈련을 끝낸 MBC靑龍도 서울에서 마땅한 연습장을 구하지못해 지난1일부터 淸州에서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 馬山에 스프링캠프를 설치했던 OB베어스는 지난달말 일단 서울로 올라왔으나 연습장을 빌지못해 연습을 중단, 다시 남쪽의 全州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있다.

서울시내의 실업및 대학팀등은 프로야구팀에 운동장을 빌려주지않기로 은밀히 합의, 프로야구와 아마야구간의 불협화음을 보여주고 있다.

日TV서도 中繼

◆…첫 출범하는 한국프로야구에대해 日本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있다. 오는 27일의 개막식에는 日本국영방송 NHK를 비롯, 후지TV, TBS, CBS, RKB등 5개 방송사가 특별취재진을 파견할것을 밝히고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협조를 요청해왔다. 특히 NHK와 후지는 개막경기 중계를위해 22일 실무자를 서울에 파견, KBO측과 협의케할 예정이다.

개막식에 참가예정인 日本프로야구 코미셔너인 下田武三씨와함께 20명의 야구전문기자들도 방한, 한국프로야구개막을 보도하게 되며 2천여명의 야구관전 관광단이 서울을 방문하게될것으로 보인다. 【徐】

구시껜 挑戰者 리오스도 당했다
"스테이크소스에 藥物투입"

日誌 충격적폭로 2彈 호텔料理師 10萬엔에 매수
다른 4게임서도 工作…미수

【東京10日=宋李澈특파원】가네히라(金平)「휴먼」을 폭로하여 국제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日本의 週刊文春은 18일字(11일발매)에서 다시 日本복싱계의 영웅인 구시껜·요오꼬(具志堅用高)의 유례없는 13차 타이틀 방어기록의 배후에도 독물투입공작이 있었다고 제2탄을 폭로했다. 이잡지는 4년전인 78년5월7일 구시껜의 타이틀방어전때 도전자 헤이메·리오스(파나마)가 묵고있던호텔의 요리사가 매수되어 스테이크 소스에 약물을투입, 13회KO승을 거두었으며 요리사는 10만엔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네히라는 구시껜의 8차방어전(對로페스전)과 9차방어전(對페드로사) 11차방어전(對金龍鉉) 12차방어전(對발가스)때에도 독물공작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業界 라이벌 板門店서 殺害하라"
全浩然씨가 가네히라 提議 거부

◇일본의 국제프로복싱프러모터 가네히라가 주간文春의 폭로후 9일하오 첫기자회견을 갖고 독물공작을 극력 부인하고있다. 【東京9日AP聯合=本社】

한편 가네히라씨가 한국의 유력프러모터인 全浩然씨에게 살인청부를 부탁한일이있다고 日本의 주간 호세끼(寶石)와 아사히(朝日)예능이보도했다. 10일자마이니찌(每日)신문은 78년5월에 있었던 WBA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인 구시껜·요오꼬의 타이틀방어전때 가네히라의 심부름을 받았다는 40대남자가 당시 리오스가 투숙하고있던 히로시마 센트럴호텔 조리사에게 약물주입을 의뢰했음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가네히라가 살인청부를 했다는 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가네히라가 그의 라이벌인 교오또 프러모션사장 아라시다(嵐田)를 판문점에서 살해해달라고 한국 극동프러모션회장 全浩然씨에게 부탁했으며 아사히예능 2월25일자에는 80년5월께 全浩然씨가 일본권투협회(JBC)의 고지마(小島茂)총무부장앞으로 보낸편지에서, 가네히라가나에게아라시다를살해 하도록 부탁했다고 전제하고『나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않는다. 내가 싸움에 말려들어갈리 없다. 가네히라의 부탁은 신의 도 예의도 없는 폭력단의 짓이다. 오래전 가네히라는 아라시다가 싫다면서 판문점에서 그를 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나에게 여러번 부탁했다. 가네히라가 살인청부까지 한다는것은 생각할수 없는일이다. 따라서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해달라고』전했다는것.

이같은 편지내용은 가네히라와 함께 JBC회장선거에 출마했다가 타의로 사퇴, 가네히라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로열가와까미 권투클럽회장 가와까미(川上)가 지난 1월29일 일본 매스컴에 공개함으로써 알려졌다.

가네히라는 살인청부설에 대해 입을 다물고있다.

한편 가네히라는 9일하오 7시 東京東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간文春의 폭로기사는 사실무근이기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함과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등 민·형사적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金東吉 프로전향
亞洲경기 치른후

최근 프로전향설이 강력히 나돌던 아마복싱 라이트웰터급 한국대표 金東吉은 오는11월 뉴델리아시안게임을 치른후 프로선수로 뛰기로했다.

79년6월 대표선수가 된후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성적을 올렸던 金은 최근 가족들의 권유에따라 프로전향의사를 비쳤었다.

◇金東吉선수

올림픽 메달·紀念品展
롯데쇼핑센터서 開幕

88올림픽 서울유치기념 역대 올림픽대회 한국입상자 메달및 기념품 전시회가 10일상오11시 롯데쇼핑센터 7층 문화행사장에서 개막됐다.

오는 22일까지 13일동안 계속될 이전시회에는 제1회 그리스 아테네올림픽 우승메달(진본)과 입장식사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우승자 孫基禎씨의 금메달 부구사진, 몬트리올올림픽 레슬링 우승자 梁正模씨의 금메달등과 역대올림픽 한국입상자들의 메달, 올림픽참가국 기념배지, 입장권철, 출입증등 총 2백50여점의 관계자료가 전시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이채를 띠고있는것은 전대한체육회장 閔寬植씨가 64년 東京올림픽에서부터 80년 모스크바올림픽까지 수집, 소장하고있는 1백30여점의 각종기념품, 기념배지, 기념주화, 마스코트등이 출품되어 눈길을 끌었다.

阿洲國參加예상 LA올림픽에

【뉴델리9日로이터=聯合】모니크·베를리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사무국장은 9일 南阿共과 일부 국가들간의 체육교류때문에 아프리카국가들이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참가를 거부할것으로는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3월 뉴델리에서 개최될 IOC총회의 준비차 印度를 방문중인 베를리유여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어떤 기구 보다도 IOC가 제일먼저 南阿共에 대한 승인을 철회했기 때문에 아프리카국가들의 올림픽참가거부 가능성은 없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5일내 未決땐 開催地를 옮겨
세계女子 소프트볼

【오클라호마시티10日AP=聯合】돈·포터 국제소프트볼연맹(ISF) 사무국장은 오는 7월 臺灣에서 열릴예정인 제5회 세계여자소프트볼선수권대회를 둘러싸고 中共과 臺灣간에 빚어진 제반문제들이 오는15일까지 타결되지않을 경우에는 개최지를 옮길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터국장은 이곳 오클라호마시티에서 8·9 양일간 臺北소프트볼협회 대표단과 회담을갖고 臺灣國歌연주및 국기게양문제등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12개팀 풀리그로
9월世界野球일정 확정

제27회 세계아마야구선수권대회(9월4~18일·서울) 조직위원회는 9일 12개팀의 풀리그로 진행되는 대회대진일정을 9일 발표했다. 주최국 한국은 9월4일 하오 1시 개회식에이어 콜롬비아와 첫경기를가지며 최종일인 18일 폐회식에 앞서 하오 5시 지난대회 우승팀 쿠바와 마지막경기를 벌인다. 공동수위팀이 생길경우에는 토너먼트의 결승라운드를 갖게된다.

시설을 오는 3월말까지 대폭 개수 보완할 계획이다.

야구장 관리측은 또 오는 4월부터 스코어보드 확장공사에 착수, 오는 8월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새스코어보드는 전광판과 선수 심판 부수명을 모두 표시하고 백스크린을 설치키로 했다. 【釜山=聯合】

할렐루야 幹部개편

할렐루야 프로축구팀은 10일 단장·부장·감독등 임원진을 확정 발표했다. 공석중인 단장에는 李秀政씨(40)가 취임했으며 金容植감독(72)은 부장으로, 前대표팀감독 咸興哲씨(52)가 감독으로 부임했다.

初心者를 위한 가이드 <1>

싼飛行機를 타라
美국내선 밤에타면 절반값
4백75달러면 60일안에 16개도시 여행
대서양노선 할인종류 1백60개나

바야흐로 해외여행개방시대가 열리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유학 취업 이민 출장등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국제선 비행기를탈수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관광을 위한 해외나들이가 일부 허용되면서 이제는 비행기탈날만을 기다리며 계를 붓는주부, 적금을 들고있는 골목부자도일반화됐다.

개방시대와 함께 늘어날 해외나들이, 가슴설레는이 여행길을어떻게하면보다 경제적이고 알뜰하게 할수있는가.

사실 외국을 뻔질나게 드나드는사람들도 이문제만은 비교적 생소하다. 그만큼 많은 사전정보와 지혜가 요구되는 하나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공업계전문가들이 맨처음 제시하는 비결은 일치한다.

『싼 비행기를 타라』는 것이다. 같은거리, 같은기종이면 요금이 같다고생각하면 큰오산이다.

국내에서는 꼬박꼬박협정요금을 받는 KAL은물론이고 소문난 외국항공회사들도 세계시장에 나가면 피나는 덤핑을 하고있다.

특히 미국이나유럽에는 각종할인요금제가 있어 이를 잘활용만하면 엄청나게 싼비행기를 탈수있다.

해외여행경비는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절반이 비행기요금이고 이부분을 줄이는게 바로 절약의 첩경이다.

회사원 K씨는 작년 NWA를 타고 미국여행을했다. 비행기요금은 초청자가 부담, 별로 신경을 안썼다. 그런데 K씨는 뉴욕에서 스케쥴에 없이 워싱턴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갔다. 차례를 기다려 비행기를 탔다. 예약도 티키팅도없이 기다리는 차례대로 비행기를 타고 기내에서 요금을 냈다. K씨는 한국에서고속버스타기보다 쉽다고생각하며승무원에게 1백달러 지폐를건넸다. 거스름돈으로40달러를받았으니 요금은 60달러인셈이었다.

워싱턴에 도착,친구를만나고서야 K씨는 40달러를 손해봤다는 것을 알았다. 이스턴,에어라인(EA)에서는 왕복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왕복표를 사면 80달러정도로 워싱턴을 다녀올수 있었는데 그만 편도표를 사는 바람에 1백20달러가 든것.

미국여행을 하는 여행자는 대부분 뉴욕―LA항공노선을 한번쯤 타보게 된다. 그냥 항공사에 전화하고 예약을 할 경우 정상요금은 4백15달러. 우리돈으로 30만원이니 큰돈이 아닐수없다. 그러나 밤요금 할인혜택을 받았다면 3백22달러로 93달러가 절약되고 거기다 1주일전에 예약만했다면 맨처음요금의 절반도안되는 1백90달러에 탈수있다. 영어가 서툴다고 꼼꼼히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비싼요금을 물고있는 것이다. 서울에서도 아메리칸 에어라인(AA) 지점에가면 예약이 가능하다. 우리 프로테니스선수 李德姬양은 게임이 열리는 그많은 美洲지역을 돌면서 밤비행기만 탔다. 요금도 싸지만 그보다 더큰 호텔비를 절약하기위해서였다.

항공요금은 원래 IATA(국제운송협회)요금이 정해져있어 마음대로 내릴 수 없게 돼있으나 사실은 딴판이다. 각 노선마다 불꽃튀는 경쟁을 벌이다보니 온갖 희한한 방식의 할인요금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덤핑은 미국내선과 대서양노선이 가장심하다.

대표적인게 AA. 4백75달러를 내고 시카고·아메리카할인표를 사면 LA, 뉴욕, 시카고등 미국의 주요 16개도시를 60일안에 여행할수있다. 물론 16개도시를 모두 다 돌아다닐 관광객도 드물겠지만 LA―뉴욕 정상편도요금이 4백15달러이니 얼마나 싼가를 알수있다. TWA, 이스턴·에어라인의경우도 비슷한 할인요금이있다. 10인이상의 단체승객인 경우 45일간에 8개도시를 여행하고 1인당 3백75달러를 내면되는 할인제도도있다.

또 외국인에게 구간별로 정상요금의 40%를 할인해 주는 표도있다.

아쉬운 이같은 할인티킷은 모두가 서울에있는 해당 항공사지점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가난한 한국인이 파리여행에 2천5백달러의 비행기요금이 드는판에 그룹에서표를사는 프랑스등 외국인은 KAL을 타고도 1천3백달러이하로 한국을 여행할수있다. 똑같은 비행기를 탔는데도 그리고 비행기 여행경험이 많아 기내서비스를 독차지하면서도 요금은 훨씬 싸게내고 있는것이다. 한국을 출발하는 비행기에는 요금을묶어놓았기 때문에 내국인들은 그만큼 불리하다.

유럽여행을 할경우도 알아두면 싼요금이 얼마든지 있다. 파리―로마간 정상요금은 편도가 2백97달러인데 에어프랑스 할인요금혜택을 받으면 왕복요금이 2백20달러밖에 안된다.

유럽의 주요도시에 이같은 할인제도가 다있다. 단지 예약변경이 불가능하고 환불이 까다로운등 제약이따르긴한다. 이 할인은 서울에서 예약이 불가능하게 흠이나 파리여행사에 의뢰하면역시예약이 가능하다.

3개월전 혹은 6개월전 예약을 파격적인 대접을받는경우가있다. 미국인들이 정상요금의 단21%밖에 안되는 단돈10만원정도로 유럽여행을 간단히 하고가는 경우도 이장기예약제도의 덕택이다.

요금덤핑이 치열한 국제선은 대서양노선. 할인요금종류가 무려 1백60가지나 된다.

뉴욕―런던구간의 정상요금은 편도가 7백달러. 그러나 1백80달러짜리 할인요금제도가 있다. 스탠드 바이요금으로 비행장에 나가 자리가 빌경우 타기때문에 여행스케쥴에 쫓기는 사람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예약이 가능하면서 가장 싼 요금으로는 4백60달러짜리가있다. 이경우도 예약변경이 불가능한경우 몇가지 제약조건이 따르긴한다.

항공편은 아니지만 유럽여행에 편리한 할인제도로 유레일패스가 있다. 서울에서 2백달러를 주고 이패스를 사면 영국을 제외한 유럽16개국을 1등칸대칸을 이용, 2주동안 마음대로 타고다닐수 있다. 특히 밤시간 비싼호텔요금이 부담되는 여행자는이 패스가 안성마춤. 서울에서는 서울관광이 대리점이고 파리에서는 생 라자르역에서 발매하나 국내서 사는것보다 20달러 더비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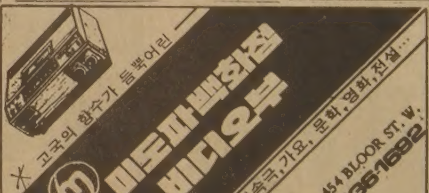
또 파리에서 영국을 가보고 싶은 사람에겐 신스피드가 있다. 파리에서 기차로 칼레까지 도착한후 배로 영불해협을 건너 다시 기차를 타고 런던까지 들어가는 코스이다. 시간이 있는 여행자에겐 더 없이 좋은 코스. 1인왕복이 1백달러정도인데 72시간내로 영국을 출국할 경우에 한해 50%할인혜택을 받을수있다. 50달러이면 런던의 싸구려호텔의 하룻밤숙박료가 된다.

KAL의 경우 내국인들의 해외여행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할인요금중에는 이렇다할만큼 싼것은없다. 미주지역을 제외한 전노선에학생에한해25%를할인해 주는 학생요금이고작이다.

이보다는 못하지만 미국에 30일이상 체류하고 1백20일안에 돌아올 경우 2백달러정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남아 노선에도 臺北까지 왕복3백45달러 (정규4백32달러), 홍콩왕복 6백71달러(정규 7백52달러), 방콕왕복 8백78달러(정규 1천98달러)로 KAL이 할인혜택을주고있으나17일안에 귀국해야하고 臺北에3일, 홍콩에 5일묵어야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다.

항공사직원들은 비행기요금처럼 복잡한것도 드물다고한다. 그만큼 할인요금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싼 항공요금을 적용받으려면 경험많고 유능한 발권직원을만나야한다. 항공사보다는 일반여행사나 대리점에서 더욱 좋은 할인요금 정보를 얻을수있는것도 유의할일이다. 【金昌宗기자】

◇알뜰한 해외여행의비결제1장은 우선「싼비행기를타라」는것이다. 똑같은거리, 똑같은 기종간에도 항공요금은 천차만별이다.



주간女性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FURS

Paul Magder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 : 30~6 : 00 월, 화, 수, 토
9 : 30~9 : 00 목,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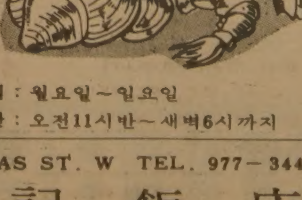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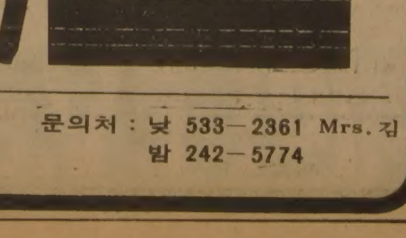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記飯店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3월16일까지 BIG SALE
$140 Discount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익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토론토 교육성

모국어교육 1982~83)

지 도 요 령

1982-83학년도 토론토 교육성에서는 31개 다른언어와 모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학급은 1주에 2시간30분간무료로 메트로 토론토 거주주민의 모든 국민학교학생들에게 제공된다

학생등록에 대한 프로그램의 소책자는 9월초 부모들에게 보내질 것이다.

교 사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를 원하는자의 신청서를 아래 주소로 현재 접수중이다.

Toronto Board of Education,
The Heritage Languages Department,
155 College Street, Room 623,
Toronto, Ontario
Telephone: 598-4931 ext. 605

이 프로그램에대해 채용된 후보자들은 부모나 학교당국에인정돼야 한다. 우선권은 온타리오 교사중이나 그들태생의 동등한 학력, 적절한 교사경험을 갖고있는 교사들에게 주어진다.

신청자들은 1982년3월26일까지는 신청서를 완전히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 더이상의 내용은 위의 전화로 하면된다.

私立고교 赤字늪속에

平準化후 10년누적 人件費대기에 급급

운영난 최악…國庫지원 苦待

校舍 확충등 施設투자는 꿈

서울 30校 6백억 긴급放出

고교평준화 조치 이후 출관 재정 적자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국의 유명사립고등학교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0일 서울시내 1백37개사립고교중 22%에 해당하는 30개고교가 — 82학년도 한해동안 6백억원을 긴급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밝혀진것.

이로 미루어 전국적으로는 상당액수의 국고보조가 지급됐을것으로 추정되는데 사립고교의 이같은 재정난은 지난73년 정부의 고교평준화시책이후 10여년동안 계속 누적돼온 현상이다.

그러나 사립고교의 국고보조도 근본적인 해결책이될수없으며 앞으로도 개선가능성이없어 지원대상학교와 지원액수를 점차 늘려가야할 형편이다.

더우기 정부의 국고보조도 사실상 호봉높은 사립고교교사들의 봉급지급등 시급한부분에 전액 쓰여지고있어 교사확충등 시설투자는 엄두도 내지 하고있다.

문교부 집계에따르면 특히 서울시내 사립고교중 역사가 오래된 명문고일수록 재정난이 심해 中央 徽文 培材 養正 培明高가 모두 적자였으며 進明女高나 淑明女高등도 모두 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문교부는 이들 30개사립고교가 매달지급하는 교사봉급을 미뤄야할정도의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이밖에 몇몇신흥고교를 제외한 대다수학교도 극히 취약한재무구조를 갖고있다고 말했다.

문교부가 밝힌 국고보조대상 30개고교는 다음과같다.

▲漢城高 ▲徽文高▲서울藝高▲養正高▲慶熙女高▲高麗高▲光新商高▲大新高▲大光高▲中大附高 ▲同德女高▲培材高▲梨大附高▲柳韓工高▲仁昌高▲檀國工高▲東大附高▲啓聖女高▲培明高▲韓國三育高▲仙和女高▲漢陽工高▲中央高▲誠信女高▲東北高▲進明女高▲中大附女高▲慶熙高▲信一高▲淑明女高

全大統領危害음모 一團의北韓人개입

全斗煥 대통령위해음모사건을 수사중인 캐나다경찰은 9일『一團의 북한인』들이 이사건에 개입되었다는 증거가점점 더 분명히나타나고있다고중간수사결과를밝혔다.

한 경찰소식통은 상세한수사결과를 밝혀달라는 기자의요청을 거부하고 다만 수사가 현재『순조롭게』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경찰의 수사방향이 관련혐의자 찰즈·야노버를 계속 구속할수있는 방증을 확보하는데로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온테리오 최고법원은 지난8일 야노버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보석적부심을 오는15일까지 1주일간 연기했다. 【토론토 9日=聯】

대학생 副業알선저조

文敎部집계 서울大는 67%에 그쳐

지난80년 대학생과외 금지조치이후 각대학들은「부업보도실」을 설치하는등 대학생부직알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실적은 극히 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10일 문교부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업을얻은 대학생총수는 학내 3천6백3명, 학외 8천7백61명등 모두1만4천3백6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업얻기가 비교적용이한 서울大의경우 1천5명이 부직알선을의뢰했으나 이중 67·6%인 6백79명만이 부업을 얻었다.

서울大생의 부업을 직종별로보면▲번역 교정 편집이1백90명으로 가장많고 ▲사무보조1백50명▲조사요원1백12명▲판매원57명▲경비원3명▲기타1백67명이며 이들이받는 월급여액은 최고15만원, 최저3만원으로 그어느경우에나 학비, 생활비를 충당할수없는 액수였다.

高麗大 작년한해 百38명 懲戒

高麗大에서 지난 한해동안 학내외문제와 관련, 징계를 받은 학생은 제적 40명, 무기정학 2명, 직권휴학 89명등 모두 1백38명인것으로 밝혀졌다.

84년도 檢定교과서 중학에도 擴大키로

문교부는 새교육과정에따라 오는 84학년도부터 사용할 검정 (2종) 대상 교과서를 종래의 인문계고등학교에국한하던것을 중학교까지 확대키로했다.

戰警이 동료7명射殺후 自殺 "大隊長파면 不當하다"

大法, "원심公平잃었다"判示

80년事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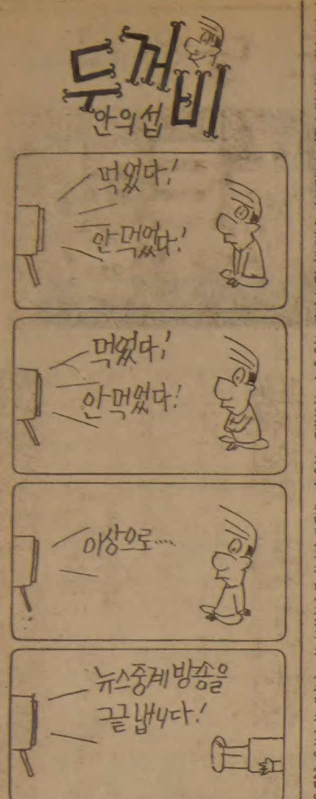
부하 전경대원이 총을난사, 동료대원7명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다는 사실만으로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전투경찰 대대장을 파면한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1부 (주심李會昌대법원판사)는 10일 전전남도경 제703전경대 대대장李廷昱씨 (39·파면당시경정)가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판시, 원심을깨고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李씨는 전경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80년 9월23일부하전경대원 嚴泰熙특경(당시21세)이 평소동료들의 인격적인 천대와 차별대우를 참지못해 M16소총으로 이태영대원등 분대원 7명을사살하고 자신도 자살한사건이 나자 같은해 10월25일 파면됐었다.

대법원은『공무원을 징계할때는 피해의 정도에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계종류를선택해야하며 (비례원칙) 일반적으로 적용해온 기준에 맞추어 공평을 잃지않아야 한다 (평등원칙)』고판시,『李씨를 파면한것은 이 두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이유로 ▲李씨는 관할구역이 광대하고 부하의수가 많아 지휘통제가 어려운데도 새로전입하는 전경대원에대해 개별면담, 소원수리등을 통해 신상파악을 철저히 하는등 지휘감독에노력했으며▲대대장은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에 이어 4차상급감독자에 해당되며 4차상급감독자에대한 파면은 경찰청사가 완전히 타버린경우에만 내릴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이 정하고 있다는점을 들었다.



"勤勞조건 획기적 改善을"

어제 勤勞者의날 6백47명에 褒賞

賃金향상등도 결의

10일은 제37회근로자의날. 이날 서울에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상오10시 全斗煥대통령을 비롯, 權重東노동부장관, 鄭漢株한국노총위원장등 각계인사와 근로자등4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근로자들은 이날 기념식에서▲최저생활급보장과 실질임금의 향상▲근로시간 단축을비롯 근로조건의 획기적개선▲자율적 노사관계발전등을 촉구하는11개의결의문을채택했다。

한편정부는이날金春花씨 (46·동아전자직조공) 등 근로자 20명, 李東根씨(52·전국항운노조麗水항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 4명, 朴光淳씨 (51·호남전기대표)등 사용자 3명등 모두6백47명에게 각각 동탑, 철탑, 석탑 산업훈장등을 수여했다.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은 다음과같다.

◇銅塔산업훈장▲金春花▲李東根▲朴光淳 ◇鐵塔산업훈장 ▲金吉童 (유신산업편직기사)▲吳光泳 (한전淸州지점사원) ▲朴載奎 (三陟탄좌노조조합장) ▲金順奎 (석공咸白광업소선산부) ▲朴珉守 (대동공업주조반장) ▲金千玉 (대우중공업인천공장조장) ◇錫塔산업훈장 ▲李明碩 (명화크러치분임장) ▲元鍾完 (한양주택철근반장) ▲吳昌煥 (전국금속노련대한전선노조지부장) ▲朴東熙 (전국전력노조 한강수력발전지부장) ▲崔斗鉉 (무궁화유지공장장) ▲梁吉錫 (대암산업공업사반장)▲李成雨(풍영대표)▲金龍福 (영동농장대표)

雪嶽洞등 10곳 通禁·추가철폐

정부는 야간통행금지 해제지역에서 제외됐던 지역중 인접한 해제지역과 생활권이 동일한 東草市 雪嶽洞등 10여개 지역에 대해 통금을 추가로 해제키로 했다.

치안본부에 의하면 雪嶽洞동이들 대상지역은 주민들이 인접해제지역과 같은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통금으로생업에 불편한적이 많아 우선적으로 이러한지역을 해제키로 한것이다.

大入미끼 巨額사취

서울冠岳경찰서는 10일 中央대학총무처 비상계획과 직원 宋雄變씨 (33)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宋씨는 지난달25일 서울銅雀區 黑石1洞 충무다방에서 金德榮씨 (46·상업·서울銅雀區黑石3洞95) 의장녀 金모양(19)을 中央大사범대 가정교육과에 합격시켜준다며 金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혐의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신비한죽음 憧憬한 女行員

친구따라 목매자살

팝뮤직과 미스터리 영화에 심취한 감상적인 20대여자은행원이 친구가 자살하자 신비스럽게 죽는것을 꿈꾸어오다 친구의 뒤를 따라 목숨을 끊은사실이 뒤늦게밝혀졌다.

지난1일 정오께 서울中區武橋洞동민빌딩11층 비상계단에서 중소기업은행 新村지점 창구여직원 정은미양(21·麻浦區倉前洞서강아파트나동402호)이 목을매 숨져있는것을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정양은평소 미스터리 외국영화의 주제곡을 즐겨불렀고 이영화속의여주인공처럼신비스럽게죽고싶다고입버릇처럼말해왔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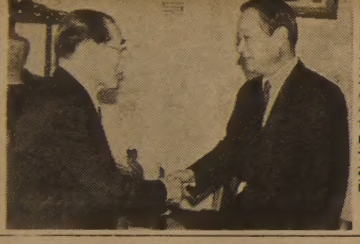
그런데정양은지난해 9월이은행본점국제영업부에서 같이 근무해 친하게지내오던 박영주양(20)이 약물에 중독돼 병원에옮겨 치료를받던중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끊자 친구의 뒤를따라가야한다며 자주우울증에 빠져왔었다。

숨진 정양은 지난80년 서울S여고를 졸업한뒤 중소기업은행에 입사해 동료인 윤모양 (21) 과 지난9월 숨진 박양등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팝송과 미스터리외국영화를 즐겨 관람해왔다는것。

정양은 숨지기전『내가 죽는건 아무도 모를거야。나는 죽지만 뒤따라갈게。 영주야 아주죽는것은 아니야。영원히 살따름이지』라는 육성과 영화『어둠속의 별이 울릴때』의 주제곡을 직접불러 녹음테이프에 남겨놓았다。

◇晝耕夜讀 학생女工 근로자의 날인 10일중·고교과정을 이수, 졸업의 기쁨에 차있는 여공들. 이들 3백61명은 지난1년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학업을 계속해왔다. 【10일상오 서울西大門지역 새마을일요고등학교에서=李昌洙기자찍음】

日 中日新聞 가또社長일행 外務·文公장관 방문 要談



◇李光杓문공장관㊨이 가또(加藤) 일본中日新聞사장과 악수를 나누고있다.

한국일보社초청으로 來韓한 日本中日新聞의 가또·기이찌로(加藤巳一郞)사장(65) 일행은 10일상오10시 외무부로 盧信永장관을 예방, 요담했다.

가또사장일행은 이어 李光杓문공장관을 예방 韓日간의 문화교류증진 방안에 관해 요담했다.

◇홈런 異變
한아름 (경기도남양주군 구리읍 교문 7리5의9)

◇어느쪽이 여자지?
윤빈 (서울시 동대문구 상봉2동10의59)

현상금 2천만원

武器도난사건 검거警官은특진

【麗水=聯】尹奇老전남도경국장은10일하오한전여수지점예비군무기고총기도난사건과관련, 현상금2천만원을 내걸고 범인검거에 공이큰 경찰관은 1계급 특진시키겠다고 말했다.

麗水지점장「待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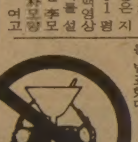
속보=韓電全南지사는 10일 직장예비군소대 무기도난사고의 책임을물어 金忠南麗水지점장을 대기발령하고 후임에 安亨泰씨를 발령했다.

이날상오 成樂正韓電사장은 麗水에 와 사고현장을 돌아보고 범인검거에 한전직원들이 앞장서서 협조할것과 무기고에대한 경비를 강화하도록 당부하고 귀경했다. 【光州·麗水=聯】

일자리찾는 女學生 兄弟가 욕보여

서울東大門경찰서는 10일 학비를 벌기위해 찾아온 여학생들을 꾀어 욕보인 백영상사 사장 安英吉씨 (27·鍾路區崇仁2洞202의23)와 安씨의동생 圭伯씨 (22) 安모군 (19·S기계공고3년) 등 3형제를 미성년자간음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의하면 安씨동은 지난해11월 鍾路5街191 명화빌딩503호실에 백영상사라는 아르바이트회사를 설립, 광고를보고 찾아온 李모양 (18·H여상2년) 朴모양 (19·Y여상2년) 등 여고생2명을 면담을구실로 여관과 자기집으로 유인, 차례로 욕을보인 혐의를 받고있다。



앞으로 혼인申告때 건강診斷書도 첨부

保社部검토

千命基보사부장관은『성병퇴치를 위해 혼인신고시건강진단서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군재대시에도 검사하는 것을 국방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千장관은 이날 국회保社委에서 의원들의 정책질의에대한 답변에서 이같이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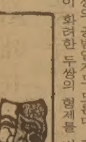
東海 중부海上에 폭풍注意報 발효

중앙기상대는 10일 낮12시를 기해 동해중부해상과 울릉도 독도해상에 폭풍주의보를 발표했다。

어느兄弟의 履歷書

빈집털이 窃盜형제는 勇敢했나

탈선協同… 前科합치면 16犯



형제절도단이 붙들렸다. 친구사이인 다른 형제와 함께「도둑질」을 밥먹듯 하던 사람들이다.

10일 서울南部경찰서에 특수절도혐의로 구속된 李圭文씨 (31·서울永登浦區 道林2洞205)와 圭三씨 (28·〃) 형제. 하기사「밀고」나「배반」의 염려가없고 눈짓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통할수있으니 최상의 공범일지도 모른다. 전과기록이 화려한 두쌍의 형제를 바라보며 가법지않게 생각이 지핀다.

형圭文씨의 전과는 3범, 동생圭三씨는 13범으로 형제의 전과를 합치면 16범. 이들은 수배중인공범李龍萬씨 (31·전과5범·경기富川市素砂洞83)와 龍一씨 (23·전과9범·〃) 형제와 합세, 지난80년부터 승용차3대를훔쳐 빈집털이를 해왔다.

이들은 경찰에서『지난 2년여동안 아마 1백여차례에 걸쳐 1억여원어치의 물건을 털어왔을것』이라고 스스럼없이 밝히고있다. 龍萬씨형제가 검거되면 범죄사실은 더욱 늘어날것이 확실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이들 형제가 악의 소굴에 빠져든것은 66년부터였다. 동생 圭三씨가 절도죄로 1년간 복역했고 형 圭文씨는 14살때 막노동을하던 아버지가 병사하자 고교1년을 중퇴했으며 70년 9월 폭력혐의로 법망에 걸렸다.

이때부터 형제는 삶의 방법으로 절도를 하기 시작했고 80년부터는 龍萬씨형제와 손을 잡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은채 빈집만을 골라 터는「불가사리식수법」으로 그세계」에서 유명했다. 두쌍의 형제절도범들이 막상막하의 실력을 자랑했던것.

이들은 한때 범죄사회에서 헤어나려고 노력도 한것 같다. 동생 圭三씨는 지난81년 서울 永登浦區 大林洞에서 포장마차를 해봤지만「수입」이 시원치 않았고 때마침 부근에서 도로정비공사가 시작되자 포장마차장사를 집어치우고 다시「배운재주」를 부릴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두쌍의 젊고 건강한 형제들은 삶의 방식을 그렇게 밖에 구사할수 없었을까.「형제」가 절도행각에서 보인 협동심을 다른곳으로바꾸어 노력했더라면 얼마든지 부끄러움없는 정상시민의 생활을 누릴수가있었을 것이다. 이형제의 불운, 그가족의 불행을 아쉬워하는 사이로 탈선한 젊은이가 재생할수 있는여건이 제대로 안돼있는 현실이 무겁게 느껴진다. 【鄭東鎬기자】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피로연
— 예 약 환 영 —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목, 금, 토, 일 : 권순근 악단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내고향 통닭집
〈오늘의 메뉴〉
전기구이 통닭 오뎅, 가깨우동
곰탕, 설농탕, 김밥
생선초밥, 빈대떡, 만두등.
영업시간 : 아침 10시～새벽 1시
전화번호 : 537—0432
658½ BLOOR ST. W.
대표 : MRS. 리
MANNING BLOOR

BIG SEVEN무역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 : 533—7966 김 영 철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광고 신청은
한 국 일 보 사
●일 반 광 고 : 최 성 조
●매매구인광고 : 박 경 욱
533—2361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 6548
이영두, 이건하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 364 : 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 1140
(KING × YORK)

자동차수리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 · 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873. 366−220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번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6−5001(R) 전기덕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학, 김 한 호
☎ : (B) 532 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참 섭

O. K. 오토바디
☎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꽃 집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62−5194(여정용)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한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자동차 매매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장 의 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 · 카텐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라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보 험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김 종 조 종합보험 ☎537−7200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불 교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빅·세븐
678 Bloor St. W. ☎ 533−7966

Mister Oh for Men
☎ : 964−2606, 869−0589, 275−2187

치 과

Dr. Mark Kochman ☎ : 233−9454
(월, 토)9 : 00A. M∼6 : 00P. M. (목)9 : 00A. M∼9 : 00P. M. 3101 Bloor St. W. Ste. 203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신용조합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 W. (2nd Fl.) Tor. Ont. M6G 1L1
☎ : 533−9387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8−7300 MISSISS.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Chung's Accounting 정 필 주
* Tax Return, Planning
전 C. A. Firm Accountant ☎ : 661−1819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쪽)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신비의 생 약 "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 W. ☎ : 248−1362(R), 769−4347(B)

인 쇄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746−0675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 주보 · 명함 · 청첩장 · 책자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493−8894. 윤 종 대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창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 741−7829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 × 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流星의 賊 <329>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前의 燈火 ④

「징비록」을 좀 더 인용한다.

『…경상감사 김수는 처음 진주에서 변사(變事)를 들었다. 말을 타고 동래로 향하는 도중 적변이 이미 근접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진하지 못하여 경상우도로 달려가긴 했지만 어쩔 줄을 몰라 다만 각읍에 격문(檄文)을 띄웠는데 그 내용인즉, 적이 쳐들어오니 [illegible]들은 산으로 피하라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도내는 벌집을 쑤셔놓은것 같은 혼란이었다. 용궁현감 우복룡(龍宮縣監 禹伏龍)이 읍군(邑軍)을 데리고 병영으로 가는 도중, 영천(永川)의 노상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방어사소속(防禦使所屬)의 하양군(河陽軍) 수백이 상도를 향해 그 앞을 통과했다. 복룡은 그 군사들이 하마(下馬)하지 않고 통과하는데 화를 내어 이들을 멈추어 놓곤 『너희들은 반란을 피하는 놈들이구나』하고 책했다. 하양군은 병사의 공문을 제시하여 자기들의 사정을 설명했으나, 복룡은 부하 군사들에게 눈짓을 하여 하양군을 포위하곤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 그 시체가 누누이 쌓였다.

그런데 순찰사 김수는 이와같은 행위를 공적으로 상신했기 때문에 복룡은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어 정희적(鄭熙績)의 뒤를 이어 안동부사(安東府使)에 임명되었다.

후일 하양군 군사들의 과부와 고아들이 중앙에서 사신이 올때마다 말앞에 막아서서 울며 호소했지만 그때 복룡의 명성이 너무나 높았기때문에 그들의 읍소는 보람이 없었다…』

조정에서 이 변보를 처음 들은것은 4월17일이었다.

조정은 이일(李鎰)을 순변사(巡邊使)로 임명하여 중로(中路)로 내려가게 하고, 성응길(成應吉)을 좌방어사에 임명하여 좌도(左道)로, 조경(趙儆)을 우방어사에 임명하여 우도(右道)로, 유극량(劉克良)을 조방장(助防將)에 임명하여 죽령(竹嶺)을 지키게 하고, 변기(邊璣)를 조방장으로 임명하여 조령(鳥嶺)을 지키게 하고, 경주부윤 윤인함이 무능하다고 하여 전강계(前江界) 부사 변응성(邊應星)을 경주부윤에 임명했다.

바로 그 이튿날 부산함락의 소식이 들어왔다. 이어 속속 패보만이 들이닥쳤다. 순변사 이일이 정병 3백명을 모아 출발하려고 병국의 선병안(選兵案), 즉 군인명부를 펴보았는데 모두 백도(白徒) 들뿐이었다. 훈련이 되지 않은 병사들이 었다는 뜻이다.

그래도 도리가 없다고 소집하여 검열해 보았더니 대부분이 서리(胥吏)와 유생(儒生)들로서, 유생들은 과거를 본다는 이유로, 서리는 현직에 있다는 이유로 병역면제를 신청하는 상황이었다. 잘라 말하면 한놈도 쓸만한 놈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일의 출발이 3일이나 늦어졌다. 각시의 패보는 잇따라 올라왔다. 정세는 급박했다. 하는수없이 이일은 단독으로 출발하고 별장 유옥(別將 兪沃)이 모병(募兵)하여 뒤따라 가기로 했다.

좌의정 유성룡이 임금에게

『병조판서 홍여순(洪汝諄)으로선 이난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뿐만아니라 군사들의 원한을 사고있읍니다. 빨리 갈아야 할것입니다』

하고 상주(上奏)했다.

海外걸작漫畵

(개 조 심)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저녁시간에 Waitress로 파트타임 일하실분은 오후 4시이후에 Nikko Garden으로 오셔서 Mr. Gus에게 문의바람(460 Dundas St. W.)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 : 284－9325. 282－3353(스카보로지역)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2명구함
☎368－2819 (Mr. Wong)

가족처럼 함께 가게일을 돌볼 여자분 구함. 침식도 제공.
☎ : 1-727-3721

점심시간에 파트타임 Kitchen Helper 구함.
(오전11시～오후2시 Mon.－Fri.)
☎ : 421－6016 (오후2시이후 연락바람)

입주하셔서 3살된 아이와 가사를 돌봐주실분 구함. 신원 확실하신분.
☎ : 793－5531(부라말리지역)

매매및 양도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 (Gladstone 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생선가게 팝니다.(퀸스웨이×로얄욕)꼭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람)K & R(Sea Food)
☎ : 259－1585(Mr. Joe Bondreau)364－3883(Frank)

가게급매
가격 47,000불 ＋ 스탁
☎ : 1-877-6463, 883-4550 Mr. 김

고급주택, 건축용대지 2에이커(200×438)
Aurora 북쪽, Hwy 404로 30분이면 시내도착
$84,900 ☎ : 1－898－3298

① 도너츠와 햄버거
도너츠 주매상 : $4.500 햄버거 주매상 : $2.500
비데오 머신에서만 월수입 : $10.000
요구액 : $289.000
②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4.500(일종의 Tuck Shop)
요구액 : $32.000
③ 점포와 3베드룸 아파트, 요구액 : $82.000
이 훈모 부동산 ☎ : 225－1204

비데오 아케이트 세일
15머신＋REFRESHMENT라이센스. 아스킹 : $30.000
☎ : 691－8337(Mr. 진 : 12시이후 연락바람)

외국인이 경영하는 20여년의 역사를 갖고있는 기가막힌 위치에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 : 466－4091(Mr. Bert)

외국인이 경영하는 플라자에 위치한 타번(Tavern) 레스토랑 급매 주6일영업. 주류면허있음.
아스킹 : $30.000 ☎ : (B)742－0196. (R)243－8079

테이크 아웃(피쉬. 칩스. 버거스)짧은영업시간
GOOD FOR CHINESE FOOD(스카보로지역)
렌트 : $650 리스 : 11년 ☎ : (B)299－1713(R)438－9899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성업중이나 부인혼자 운영이 벅찬관계로 팔고자함
년매상 : $400,000 주매상 : $7,000～$9,000
렌트 : $450(5년간)1986년까지 $500(5년간)1991년까지
(No Increase. Heating은 Rent에 포함되어있음)
영업시간 : 주당 59시간(일요일은 쉼) 다운페이 : $35,000＋스탁
☎ : (B)541－364－5267. (R)514－694－2651(Mrs. Yoo)

"집수리 일체"시설및 수리(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 : 425－8585

외국인이 경영하는 도너츠 프렌차이스 스토아
토론토에서 1시간거리(오샤와부근)
년매상 : 20만불이상
액셀런트 리스 .(큰 파킹장 구비하고있음)
☎ : 1－885－2556(오후5시이후 연락바람)

Smoke & Gift((Bloor×Bay)
주6일경영 8 : 00AM. 6 : 30 P.M
Long Lease ☎ : 964－3749

버라이어티 & 밀크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500～$4,000
렌트 : $525 (월) 비데오 머신 있음.
아스킹 : $25,000 ＋ 스탁
관심있으신 분 연락 바람.
443 Kerr St. Oakville. ☎ : 844－6741

2베드룸 포함한 과일, 야채, 그로서리가게 매매
주매상 : $6,000 아스킹 : $49,000＋스탁
관심있으신분 아래주소로 내방바람.
143 Roncesballes Ave. (Dundas W. Subway에서 5분거리에 위치함.)

크레딧•카드를 使用 하세요.
한국일보의 広告料金 및 購読料는 여러분의 便利上 VISA 나 MASTER CHARGE를 利用할 수 있읍니다.

하우스 렌트

방세놓음(월 : $170 $140 독신자 환영
Pape Subway 에서 1블락거리
☎ : 282－0236, 466－3764

가구달린 베드룸 세놓음
독신자 환영(월 $200)
565 PAPE AVE. ☎ : 439－7093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 업 인 협 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한 일 은 행 : 865－0456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K A L : 862－8250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도서판매

한국전집 (수입품)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백과(전8권),
가정종합병원, 대 한한사전, 토지(전6권)등
1712 Queen St. E. Tor. Ont. ☎ : 690－2216 Mr. 최규출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식품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 주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 : 531－2242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743－827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킬×던다스)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새 한 칼 라 현 상 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식 당

Choi's Restaurant
▪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 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 · 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토 오후 4 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일 오후 4 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334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악기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제 일 여 행 사
649 A BLOOR ST. W. (김 종조 종합보험 옆)
☎ : 535－2377
유 지원, 신 용목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이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매매 부동산

A.E.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복덕방 ROYAL TRUST.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E.LTD. 김시성
투자전문 (IC & I) ☎ : (B)497-0600 (R)298-8558

황용현 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B) 449-8644～5, (R)286-1548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 한국일보 안내광고 *

1982 MISS KOREA

미스KOREA선발대회

●후라이보이 곽규석

원맨쇼의 제1인자
익살과 재치의 명사회

●만능연예인 피세영

연극배우·성우·디스크쟈키

특별출연!!

이숙

●인기절정의 가수

달콤한 멜로디
향수어린 정서

●격정적 선율의 신나는6인조악단

=조상국(드럼·섹스폰)·조경희(베이스)· 박정자(기타)·
전미숙(키보드)·김경분(올갠)· 장남홍(싱거)

서유미

●히트송"눈이내리네"

71년도 한국가요 신인가수상 수상
뉴욕연예계서 활약중인 육체파 가수

●응모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혼 한국계 여성
●연　　령 : 만17세부터 만25세까지
●신청서류 : (1)신청서 1매 (2)사진 2매(명함판)
●제 출 처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신청마감 : 1982년 4월10일 하오 5시
●의　　상 : 수영복·이브닝드레스·한 복
●문 의 처 : 한국일보사 (416) 533-2361~4
●기　　타 : (1)미스코리아 "진"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스코리아 전국결선대회에 출전하여야 함.
(2)입상자 전원은 82년도 캐라반 행사에 참가 해야 한다.
●입 장 료 : $30.00(디너·쇼, 댄스포함)

(미도파백화점 기증)
진 : 미도파백화점 보석부에서
진주목걸이, 반지, 귀걸이 14KGold
선 : 고급화장품 1Set
미 : 고급화장품 1Set
인기상 : 고급화장품 1Set
(아카데미 TV및 파나소닉사 제공)
20" Panasonic Color TV 1대

일시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 시청뒤)

주최 : 토론토지구한인회
후원 : 한국일보사

1982년도 MISS KOREA OF CANADA
참가신청서

1. 성　명 :
2. 주　소 :
3. 전　화 :
4. 생년월일 :
5. 특　기 :
6. 학　력(최종학교명) :
7. 직　업 :
8. 신　장 : 인치
체　중 : LBS.
바스트 : 인치
웨이스트 : 인치
히　프 : 인치